

사회 >> 3면

윤 대통령 연이은 거부권 행사... '채상병 특검법' 둘러싼 여야 공방

기획 >> 6면

서경대신문 창간 69주년 기념 명예의 전당

현장르포 >> 8면

장애인의 현실을 마주하다

제580호

2024년 8월 30일(금)

열정과 화합으로 이뤄낸 울창한 숲... 2024 대동제 'For:rest' 성료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경대학교 대동제 'For:rest'가 개최됐다. 3일간 서경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어우러져 학교는 생기로 가득했다. 올해 대동제는 한솔 총학생회와

교내 IT 동아리 '멋쟁이사자처럼'의 협업으로 축제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다. 학우들은 사이트를 통해 축제 부스 위치와 메뉴, 공연 라인업과 타임테이블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전년도까지는 음주를 하려면 캠퍼스 밖에서 주류를 사와야 했지만 신설된 편의점 이마트 24와 GS25에서 특별히 축제 기간 동안만 주류를 판매해 학우들이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첫째 날은 공연 없이 부스만 운영했다. 총학생회 부스는 매년 진행해 온 <드레미파솔시조> 이벤트와 야광팔찌, 무알코올 맥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청운관 L층에서는 포토부스도 운영했다. 또한 'For:rest'에 걸맞은 초록색 반다나를 판매해 학우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옷차림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각 차지

기구, 단대, 학과별 부스들이 다양한 콘셉트로 부스를 운영했다.

둘째 날부터는 개막식과 함께 공연이 시작됐다. 예술 공연 동아리인 SDR, 철인 28호, 위키스, 유드립이 무대를 꾸몄으며, 저녁부터는 화사를 시작으로 프로미스나인, 다이아믹 듀오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에 부스 운영도 첫째 날보다 활발하게 이뤄졌다. 먹거리 부스는 물론, 체험 부스들이 마련된 스퀘어는 축제를 즐기는 인파들로 북적였다. 대표적으로 이공대 부스에서는 '서경 제일 줄넘기 대회' 이벤트를 운영해 많은 학우들이 도전하는 모습이었다. 스포츠엔테크놀로지학과 부스에서는 미니게임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가득했다.

셋째 날에는 실용무용학과 실용

음악학부 학생들의 무대와 학우들의 장기 자랑이 이어졌으며, 저녁에는 헤이즈, 데이식스, DJ 공연 순서로 연예인 축하 무대가 진행됐다. 헤이즈는 학우들에게 꽃과 사인 앨범을 나눠주는 무대 매너를 보여줬다. 아이돌 밴드 데이식스의 청춘 노래는 축제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했다. 이날 공연을 보기 위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스퀘어를 빈틈없이 채웠다. DJ 공연을 끝으로 학우들은 축제 종료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총 3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중앙운영위원회와 봉사 스태프 및 봉사자들이 안전 관리에 힘써 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축제가 마무리됐다.

[학우 인터뷰]

- 익명 (글로벌비즈니스학부 23학번) / 정서연 (전자컴퓨터공학부 23학번)

Q. 대동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A(익명). 포레스트라는 축제의 테마와 아티스트 라인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특히 데이식스처럼 청춘

을 대표하는 밴드의 음악이 포레스트라는 축제의 테마와 잘 어우러져 더욱 즐거운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A(정서연). 이번 대동제를 생각해 보면 연예인 초청, 게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각나요. 하지만 아무래도 축제의 꽃은 노점에서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며, 술을 먹는 게 제일 생각나요. 친구들과 함께 하며 유대감을 느낀 일은 평생의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Q. 이번 대동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요?

A(익명). '청춘'! 올해는 작년보다 코로나도 완화되고 아티스트 라

인업도 만족스러워서 학생들이 더 많이 몰렸는데, 축제의 열기 덕분에 청춘의 한가운데에 서 있구나 하고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A(정서연). '젊음'이라고 생각해요. 축제에서 느낄 수 있었던 특유의 활기 넘침과 싱그러움은 20대 초반에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축제를 잘 즐기고 나서 축제가 1년에 한번이라는 게 아쉬웠고, 대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박상현 수습기자

(pasahy@skuniv.ac.kr)

사 령

8월 30일자로
아래 학우를 면합니다.

▶ 면 수습기자 이나연 (물공 23)

학과 불문 하나되어... '2024 이공체전·인사체전' 성공적 마무리

'이공체전'과 '인사체전'이 각각 지난 5월 20일(월)~24일(금)과 5월 28일(화)~30일(목)에 진행됐다.

이공체전은 이공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문사회과학대가 함께하는 인사체전은 인문사회과학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체전은 모두 ▲남자 풋살, 축구, 농구 ▲여자 족배구, 발아구, 피구 ▲혼성 종목 이 어달리기, 줄다리기로 총 8종목이 진행됐다.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러졌다.

이공체전 결과, 최종 우승의 영예는 전자컴퓨터공학부가 차지했으며, 2등은 나노화학명공학과, 3등

은 금융정보공학과가 가져갔다. 우승 상품으로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공체전을 주최한 불패무적이공대 정학생회장 이현성(토목 20) 학우는 "이공대 학우분들의 안전과 친목 도모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종목별 세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경기 분위기가 과열되지 않게 조절하여 큰 사고 없이 체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모든 이공대학 구성원들의 노력과 선수들의 적극적인 참여, 학우분들의 응원 덕분에"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이공체전 우승을 거머쥔 전

자·컴퓨터공학과학과 학생회장 최재웅(컴공 19) 학우는 "전자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통합 이후 이공체전 첫 종합 1등 수상으로, 체전을 통해 학우들이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기쁘다. 경기와 응원에 참여해 준 학우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종합 3등을 차지한 금융정보공학과 학생회장 김민지(금융 21) 학우는 "종합 3등, 특히 풋살 우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합계 노력하고 서로 응원하며 이뤄낸 성과가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금융의 열정을 이어가 더

많은 도전과 성취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사체전 결과, 군사학과가 종합 우승을, 경영학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인사체전 기간 동안 인문과학대 학생회 '새날'과 사회과학대 학생회 '우연'은 보물찾기 이벤트를 열어 보다 즐거운 행사 진행을 위해 힘썼다. 스퀘어 곳곳에 숨겨둔 보물쪽지를 찾아 청운관 앞 운영부스로 가져가면 상품권과 카페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였다. 인문사회과학대 학생회는 더운 날 진행되는 체전을 고려하여 응진 이온터렛

협한 프로모션을 통해 체전 참가자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등 세심한 운영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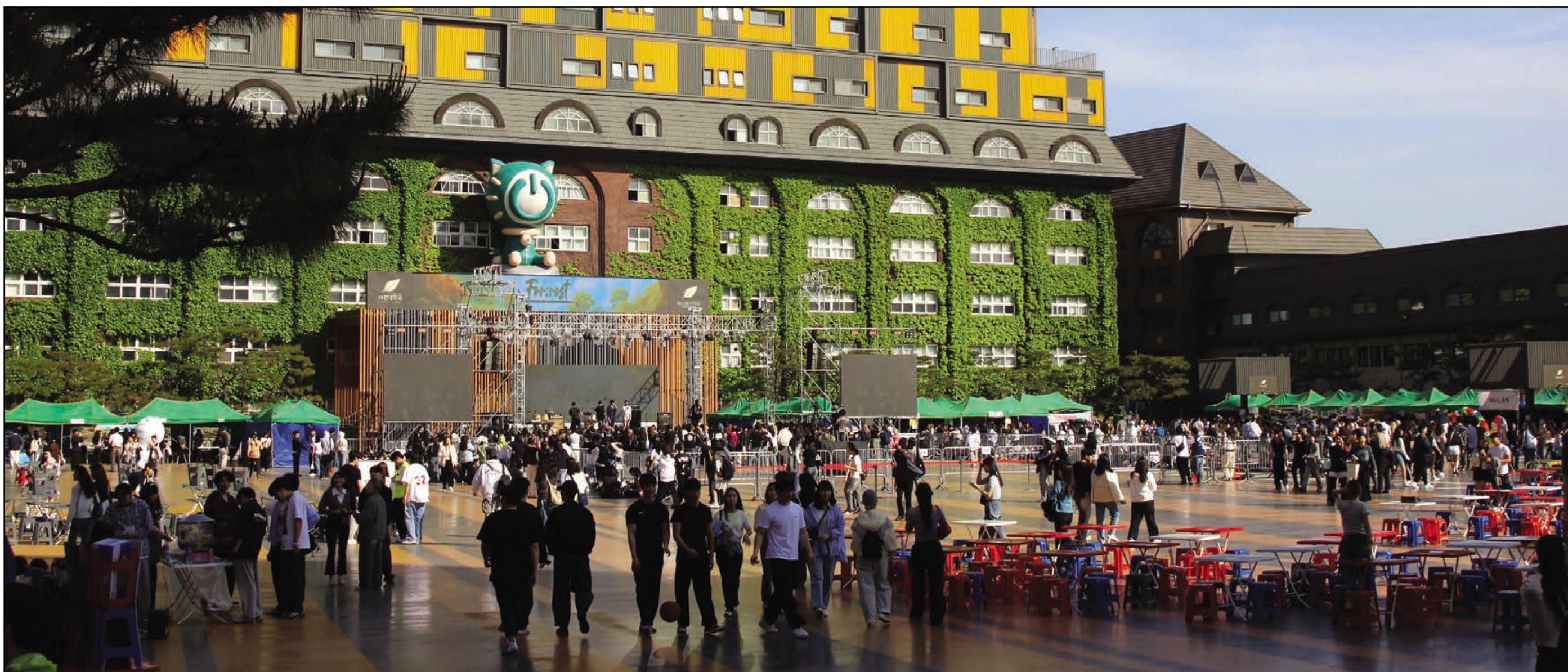
뜨거운 태양 아래 서경대 학우들의 열정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체전.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은 학과 불문 하나 되어 서로를 응원하면서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송민경 기자

(illdawn012@skuniv.ac.kr)

이나연 수습기자

(yx0nd1@skuniv.ac.kr)



서경대 캠퍼스타운, '온 더 스테이지, 창업토크쇼', '정릉 예술 창업 로드, 봄' 개최

문화예술 창업인들의 생생한 강연 펼쳐져



지난 5월 10일,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은 2024년 입주 창업기업들의 문화예술가들과 지역주민들이 소통하는 만남의 장인 '온 더 스테이지, 창업토크쇼'와 '정릉 예술 창업로드, 봄'을 개최했다. 해당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본교 유담관 로비와 분수광장에서 진행됐다.

이후 ▲AI 공연 기획자 이승현 대표 ▲미술 굿즈 회사 '미미달' 한상미 대표 ▲일러스트레이터 Shun ▲뮤지컬 인플루언서 황조교의 창업에 대한 실천 경험담을 담은 강연이 이어졌다.

'온 더 스테이지, 창업토크쇼'는 바로크 앙상블과 앙숙한 배우의 '돈 키호테'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앙상블의 멋진 하모니와 앙숙한 배우의 호소력 있는 연기로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바로크 앙상블 박유정 대표는 "서경대 캠퍼스타운의 입주기업으로 선정돼 이 자리에 섰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예술가들이 꾸준히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가간다면 그들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뽐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사회적 협동조합 '문화광장'을 이끄는 이승현 대표는 공연기획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자신의 과거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또 AI의 발

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Chat GPT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금속공예 전문 디자인 브랜드 '미미달' 한상미 대표는 창업 전 아이디어를 만들어 시장 수요를 확인해 창업에 성공한 자신의 사례를 알렸다. 한국 전통 미감을 대중화해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으로 만든 그녀는 크라우드펀딩을 시장조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팁을 전수했다. 이외에도 일러스트레이터 Shun, 뮤지컬 인플루언서 황조교도 자신의 창업 성공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릉 예술 창업 로드, 봄'에는 2024년 서경대 캠퍼스타운 입주기업과 독립출판 및 생활 공예 창업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유담관 분수광장에서 부스를 열어 음식을 판매하고, 각 기업에서 주력하는 제품을 소개했다. '성북 캠퍼스타운 아카

데미'에서 실시했던 '모두를 위한 영상제작'의 결과물 및 유럽 영화 상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고 지역 상생의 기회를 살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편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서경대학교 총학생회와 정릉골 및 정릉시장 상인회는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릉지역 68개 '제휴 점포' (스티커 부착 상점) 방문 시, 10% 할인 혜택을 주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출처: 중앙일보] 서경대 캠퍼스타운은 신규 창업가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나다움'을 찾아 바다로 간 소년... <수중발레> 작·연출가 최소원 학우를 만나다



지난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본교 북악관 스튜디오 810호에서 공연예술학부 학습자 주도형 프로젝트 특성 공연인 <수중발레>가 무대 위에 올랐다. <수중발레>는 천재 발레리노였던 쌍둥이 동생의 죽음 이후 영겁결에 발레를 시작한 소년 '준'과 늘 착한 아이를 자처하는 자신이 괴로운 '수한'이 '바다'를 매개로 억눌려있던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고 '나다움'을 찾아가는 작품이다. 공연예술학부 2학년 최연우 학우와 황주영 학우가 주연을 맡았다.

다. 남고생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어리고 솔직한 결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정했지요.

Q. 작품 속 인물 중 본인의 모습이 투영된 인물이 있는지.
A. 타인을 동경하기만 했던 제 모습을 '준'에게 투영했어요. 저는 빛나는 누군가를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떤 모습의 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준이 역시 자신과 똑같이 생겼지만 천재로 주목받았던 '완' 때문에 한 번도 '나다움'을 고민해 본 적 없는 인물이에요. 그저 우를 만나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학우 인터뷰] - 최소원 (공연예술학부 3학년 연출 전공)

Q. 어쩌다 발레와 바다를 한 작품 속에서 다루게 됐는지.
A. "발레는 중력을 거스르고 날아오르는 반역의 예술이다"라는 말을 스치듯이 봤어요. 나를 불드는 중력을 떨쳐내고 날아올라야 하는, 그럼에도 다시 바다로 돌아오고 마는 그런 예술, 발레. 그 간극이 아름다우면서도 서글퍼서 언젠가 창작에 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몸에 힘을 주고 뛰어올라야 하는 발레와 반대로 몸에 힘을 빼야 위로 뜨는 물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날아오르기 위해 항상 몸에 힘을 주고 뛰어오르던 발레리노가 몸에 힘을 빼고 자유롭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미쳐 <수중발레>를 쓰게 된 것 같아요.

Q. 앞으로의 진로 계획은?
A. 명확하게 정한 방향은 없습니다. 연극학이나 작품개발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연극만이 가지는 현장성과 솔직함이 좋아서 연출 전공을 선택한 만큼 계속 연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Q. 공연을 모두 마친 후 느낀 소감은.
A. '앞으로 이 공연만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공연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이 공연을 마음에 품고 살고 싶다는 양가적인 마음입니다. 저 자신을 가득 담은 대본을 소중한 분들과 공연했다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했습니다.

김경민 수습기자 (anna2467@skuniv.ac.kr)

서경대 음악학부, '관현악 정기 연주회' 개최... 초여름 밤을 물들인 환상적인 하모니



지난 6월 13일 오후 7시 서경대학교 문예관 문예홀에서 본교 음악학부의 '관현악 정기 연주회'가 개최됐다. 해당 공연은 지난 5월 30일 윈드 오케스트라의 관현악 정기 연주회와 6월 4일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현악합주에 이어 진행된 음악학부의 세 번째 정기 연주회였다. 이로써 음악학부는 이번 학기에 예정됐던 모든 정기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공연은 1부와 2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약 90분간 진행됐다. 앞선 1부에서는 서경대학교 오케스트라(SKU Symphony Orche-

stra, 지휘 김낙구 교수와 함께 두 명의 솔리스트가 협연했다. 신재혁(첼로/3학년) 학우가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B단조를, 이도형(피아노/3학년) 학우가 살리에리의 피아노 협주곡 C장조를 훌륭하게 소화해 내며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를 가득 채웠다. 2부에서는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전곡을 관현악 합주를 통해 풀어냈다.

본교에 교환학생 신분으로 재학한 리투 하디(20) 양은 연주회 관람 소감을 묻는 말에 "평소 클래식 음악을 잘 듣지 않는 편인데도 오케스트

라 연주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서 공연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많은 학생이 호흡을 맞춰 연주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귀국하기 직전에 이런 멋진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음악학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서경대학교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0년 창단된 이래로 다양한 앙상블을 통해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의 뛰어난 실력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으며, 현재 김낙구 교수

가 지휘자로 자리하고 있다. [참고: 서경투데이]

본교 음악학부의 정기 연주회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학기에도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예관 문예홀 로비 층에 게시되는 포스터나 서경대학교 음악학부 인스타그램(@sku_classical.music)을 방문하면 자세한 공연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김경민 수습기자 (anna2467@skuniv.ac.kr)

서경대학교 주관 '2024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운영

미용예술대학 신세영 교수, "화장품 산업 특화 인력 배출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하겠다" 약속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2024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상반기 교육이 본교 공연예술센터 5층에서 5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됐다.

'2024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는 뷰티 비즈니스 관련 분야별 교육과 취업 지원 과정을 접목하여 교육생들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아카데미에서는 탄탄한 커리큘럼과 더불어 현장 전문가

들로 이뤄진 강사진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뷰티 교육을 선보였다.

화장품 제조·품질, 마케팅·수출, 화장품 브랜드 창업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은 '일반 과정'과 '경력 과정'으로 운영됐다. '일반 과정'은 뷰티 업계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및 관련 종사자를, '경력 과정'은 화장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화학공학과 전공자 또는 3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했다. 아카데미 수료자 중 신청자에 한해

서경대학교 유담관 L층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취업 특강과 K-뷰티 특강이 진행됐다. 취업특강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취업 면접 스피치 레슨 및 실전 모의 면접과 더불어 현직자 취업 Q&A, 이력서·자기소개서 등 채용 서류 작성법을 통한 뷰티업종 취업 동향 및 직무 이해에 초점을 뒀다. 외국인 유학생도 수강할 수 있는 K-뷰티 특강은 K-뷰티 트렌드에 맞춘 메이크업·헤어 스타일링 전문가 시연에 이어 개인

별 뷰티 스타일링 코칭으로 K-뷰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수료 후에도 교육생들의 역량 개발과 예비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은 계속된다. 개개인의 역량에 맞춘 교육으로 체계적이고 심화된 학습을 지원하는 만큼 교육생들의 보다 높은 취·창업 성공률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신가은 수습기자 (yulyull1214@skuniv.ac.kr)



▲ 출처: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

한 눈에 보는 이슈

<h3>정치</h3> <p>윤 대통령 연이은 거부권 행사... '채상병 특검법' 둘러싼 여야 공방</p>	<h3>경제</h3> <p>한없이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 결국 도돌이표되다</p>	<h3>사회</h3> <p>독도가 분쟁지역? 국방부, 독도 표기 내부 지적 묵살</p>	<h3>문화</h3> <p>민희진-하이브 갈등 지속... 분쟁으로 얼룩진 K팝 산업</p>	<h3>연예</h3> <p>방탄소년단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논란</p>	<h3>스포츠</h3> <p>파리올림픽 '소수정예' 한국 선수단... 예상 꺾고 역대 최다 금</p>
--	--	--	--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윤 대통령 연이은 거부권 행사... '채상병 특검법' 둘러싼 여야 공방

'대통령 거부권 행사 → 법안 재표결 → 폐기' 21, 22대 국회서 되풀이돼



▲ 출처: BBS뉴스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병사가 숨진 사고가 1주기를 맞은 한편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차 발의하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며 견고하게 맞서는 중이다.

순직 사고 직후 초동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당시 수해 수색의 지휘를 맡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하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상부에 경찰 이첩할 것을 보고했다. 이에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박 대령의 보고에 결재 서명을 했으나 이 전 장관이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 전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두 시간 앞둔 이날날 돌연 브리핑 및 국회보고 취소와 경북경찰청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것이다.

박정훈 대령은 이러한 지시의 배경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들은 바로는 언론 브리핑이 있기 전 이첩 내용을 미리 보고받은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며 격노했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같은 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등을 다 빼라"는 부당한 내용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김 해병대 사령관 역시 해병대 사령부를 통해 "박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단독보도를

통해 논란 당일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사이에 통화가 있었으며, 통화가 끝난 지 14초 만에 이 전 장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정황도 밝혀졌다.

이러한 사태에 야당은 윤 정부를 곧바로 심판대에 올렸다. 지난해 9월 7일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뒤흔고 하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여

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아직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지적하며 투표에 전원 불참하고 퇴장했다. [출처: TV조선]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비서실장을 통한 브리핑에서 "특검제도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재의안 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 179표, 반대 111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어서 지난 5월 30일자로 출범한 제22대 국회는 출범 첫날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달 4일 해당 특검법은 또다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5일에 이뤄진 재표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부결, 폐기됐다. 이러한 계속된 실패에도 야당은 한층 강화된 특검법안을 마련해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고 말했다. [출처: JTBC]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활용도 염두하고 있다.

김경민 수습기자 (anna2467@skuniv.ac.kr)

한없이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 결국 도돌이표 되다



▲ 출처: 이투데이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로, 현재대로부터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거두어 은퇴한 노후 세대에게 생활자금으로 지급하는 세대 간 소득 분배 제도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9%의 보험료율과 40%의 소득대체율로 구성돼 있다. 즉 가입 기간 내 소득의 9%를 납부하면, 가입 기간 별다른 평균 소득의 4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납부액 대비 지급액이 더 많은 이러한 구조는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의 기형적인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에서 지속 불가능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곧두박질처럼 대한민국 평균 나이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6세, 남성은 80.6세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한다. [출처: 지표누리] 납부 대상자는 줄어들고, 지급

대상자는 늘어나는 형국에서 국민연금의 소진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의하면, 별다른 조치 없이 현 상태를 유지했을 시 2055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2055년에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지는 1990년 생부터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당 결과는 지난 2018년 실시된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보다 2년 앞당겨진 결과이며, 출산율이 점차 회복될 것을 전방한 낙관적 수치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진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개혁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지난 2022년, 연금 개혁을 목적으로 구성된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시민 대표단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

체율 50%의 안을 채택했으나 정작 연금특위에서 거대 양당이 협상한 안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모두 동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고, 2%의 간극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했다.

지난 5월 7일, 제21대 연금특위 위원장 주호영 의원은 결국 여야 간 협상 결렬 사실을 알렸다. 국회의 임기가 20여일 남았음에도 주 의원은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의 의견 접근을 바사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21대 연금특위 활동 종료료를 알렸다.

이에 시민대표단은 합의에서 도출된 소득대체율 50%를 저버린 것과, 임기가 남았음에도 떠남기기로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해 버린 것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이자 시민대표단을 무시하는 지극히 오만한 처사"라며 국회의 행보를 비판했다. [출처: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다음 2027년에는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분간 국민연금 개혁안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새로운 연금특위 구성과 여야 합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급성에 비해 지지부진한 개혁 진척도에 큰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준혁 수습기자 (nicejackkyhu@naver.com)

독도가 분쟁지역? 국방부, 독도 표기 내부 지적 묵살

지난 4월 26일,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군 정신교육 교재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했고, 논란이 커지자 이를 전량 회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법 위반 및 고의가 없으며 당사자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당시 담당 실무자 4명에게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사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2월 배포된 교재를 살펴보면,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를 설명하며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이라고 적었다. "다오우다오, 쿨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곳도 11곳에 달했다. 삼국시대 당시 세력 확장, 6·25 전쟁 시 서울수복 상황 등을 표현하는 지도에 독도를 누락한 것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일 뿐이다. 독도는 명백히 우리나라 땅이다. 대한민국 동해에 위치한 독도는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등 여러 고문서에 우리 영토로 기록돼 있으며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위 및 청구권을 포



▲ 출처: 국방부

기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 당시 엄중 조치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모든 교재를 회수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국방부는 지난해 나온

초안에 대해 두 차례 자문과 한 차례 감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문위원이 독도는 영토 분쟁지역이 아니라고 지적했지만, 자문 의견이 수천 권에 달해 집필자들이 미처 검토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지도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2006년 이전판 국·검정 교과서를 부주의하게 취합하다 보니 독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역 군인 위주로 집필진을 구성한 점, 독도 기술에 대한 자문위원의 지적이 들어왔음에도 넘어간 점 등 교재 검수 과정의 미흡한 부분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매주 교재 개편 TF 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 역시 문제를 더욱 부각했다. 감사 결과에 대한 경고·주의 처분은 징계 기록이 남지 않는 행정 처분에 해당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한편 정부 부처의 독도 표기 논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 2월 외교부는 독도를 '재의 대한민국 공공관'으로 표기했고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삭제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돼 파문이 일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삭제하고 더욱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의 잇따른 독도 표기 실수는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발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다.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일본 정부의 언터러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논란은 더 이상 없어야 하기에 정부 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예진 수습기자 (jinwd@skuniv.ac.kr)

민희진-하이브 갈등 지속... 분쟁으로 얼룩진 K팝 산업

지난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자회사 소속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발견됐으며 감사를 착수했다. 민희진 대표는 지분 18%를 소유한 자신이 지분 80%인 하이브를 상대로 경영권 탈취를 시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더해, 하이브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해임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사흘 뒤,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오후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이브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타이틀을 내세워 뉴진스를 데뷔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 것이 갈등의 시초였다고 밝혔다. 외부 투자자 접촉 건에 대해서도 "농담 심야 나눈 대화를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것"이라 주장했다.

세 시간가량 진행된 민 대표의 호소 측은 기자회견으로 민심은 뒤흔들었고, 하이브를 향한 여론은 싸늘해졌다. 대중들은 하이브가 소속 레이블 아티스트 간 차별 대우를 한 점, 사적 메신저 대화를 짜깁기해 언론 플레이한 점 등을 비판했다.

5월 17일, 하이브는 민 대표로부터 제기당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에서 해임 사유를 공개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무속인의 코치를 받아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모션 방식은 표절의 영역이 아니



▲ 출처: 노컷뉴스

며, 민 대표와 맺은 주주 간 계약도 절대 노예계약이 아님을 강조했다.

5월 30일, 재판부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민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음날 민 대표는 2차 기자회견을 열어 "대외적으로 어떤 게 더 실익인지, 모두가 더 좋은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양쪽 모두를 위한 화해를 제안했다. 하이브는 같은 날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측근 두 명을 해임하고, 신규 사내이사로 하이브 측 인사 세 명을 선임했다.

한편 7월 9일 민 대표는 8시간 진행한 경찰 조사 종료 후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민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의사를 밝혔다.

앞서 하이브 측이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빌리프렘에 이어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역시 민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본 사건으로 대중들은 K팝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 대표가 지적한 멀티 레이블 간 다양성의 부재, 단순 판매량만을 목적으로 한 랩업 포토카드나 음반 밀어내기 등 아이돌 팬덤에 부담을 전가하는 악성 문화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 대표는 이 같은 고질적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 밝혔다. 그녀의 주장은 대중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간 집안싸움에 소속 아티스트들을 향한 비난, 앨범 사재기, 사이비 종교 연루설과 같은 여러 문제가 얽히며 대중의 피로도 또한 극심해지고 있다. 계속되는 법적 분쟁으로 K팝의 브랜드 가치 하락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대중음악평론가는 "이번 사태는 급격하게 커진 하이브의 성장통"이라며 "내부 역학 관계에서 비롯된 이번 문제를 K팝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서경대신문’ 창간 69주년을 기념하며



서경대학교 총장 김범준

서경대신문 창간 69주년과 지령 580호 발행을 교직원과 동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69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며 건전한 대학 문화를 조성한다는 소명 의식으로 서경대신문의 대역사를 만들어 오신 관계자와 서경대신문사 동우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서경대신문은 1955년 5월 23일 서경대 학생신문으로 창간한 이래 국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 언론 중 하나로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와 명맥을 같이 해 왔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호와 편집체계, 제작방식은 변화했지만, 우리 대학의 오랜 역사와 함께해 온 상존인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서경대신문은 그동안 서경의 도전과 성장, 발전의 역사를 기록해 왔고, 우리 서경인들의 고민과

실천을 담아내 왔습니다. 또한 대학의 다양한 이슈들에 관한 보도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소식들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업적은 그동안 서경대신문이 저널리즘으로서 견지해 온 사명감과 기자들의 노력 그리고 독자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대학과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도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경대신문사 역시 대학 학보사로서의 역할과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미래 환경에 걸맞은 혁신이 요구됩니다.

이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여 대학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며, 종이신문의 영역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소통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노력

을 기울여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언론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우리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실용교육과 교육혁신, 산학협력, 교육인프라 확충 등 학사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도와 건강한 논평을 해주시기 바라며, 학교와 교직원, 학생, 사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 69주년과 지령 580호 발행을 축하하며 그동안 서경대신문이 쌓아왔던 명성과 업적을 이어갈 주안 교수님과 학생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응원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종휴



안녕하십니까,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규터공학과 21학번 김종휴입니다. 우리 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9주년을 기념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 69년 동안, 신문사는 학내의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문사의 역사는 우리 대학교의 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신문사를 통해 학문과 학교 내외의 정보들을 신속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서경대신문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비판적 사고를 제시해 왔습니다.

신문사는 오랜 전통을 지키면서도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서경대신문은 교내 언론으로서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도 우리 신문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도전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대학 구성원 모두가 서경대신문을 통해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신문사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기자분들과 수습기자분들께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신문사, 더 나아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문사의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학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서재완



안녕하십니까,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19학번 서재완입니다. 6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준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며 캠퍼스에 학우분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가 느꼈던 현장감과 행복을 서경대학교 모든 학우분들께 전달하기 위해 활발하게 취재를 이어가며, 항상 양질의 기사를 발행하시는 신문사 기자 여러분들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학생사회 발전에 있어 서경대학교 신문사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로서 크게 기여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기여 덕에 저희 한숲 총학생회에서도 학우분들의 의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항상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대학 언론의 순기능에 대해 고민하며 학우들을 위해 진실한 보도를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중립적인 기사를 작성하시는 기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한숲 총학생회에서 항상 더 나은 학생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학생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도움을 주시는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9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34대 새들 인문대 정학생회장 최창조



'새로운 인문의 바람, 늘 당신의 곁에'. 안녕하십니까, 제34대 새들 인문과대학 정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20학번 최창조입니다. 발로 뛰는 서경대 유일의 지성 언론인 서경대학교 신문사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문생 시절부터 서경대학교 신문을 매번 정독하는 애독자 중 한 명으로서, 69주년을 맞이하는 축하사를 적을 수 있음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종이보다는 스크린이, 글자보다는 영상물이 익숙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그럼에도 서경대학교 신문사는 오랫동안 교내 신문의 고유한 가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 서경대학교 신문을 제대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학교 신문에는 다양한 교내 소식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소식, 문화, 예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읽어보신다면 후회가 없을 만큼 도움이 되는 정보가 가득하기에, 학우 여러분들께서 꼭 한 번씩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편, 신문의 이면에는 신문을 만들기 위한 학생 기자들의 노력 역시 담겨 있습니다. 학우분들께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고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끊임없이 수정하는 노력을 통해 탄생하는 것이 바로 서경대학교 신문입니다. 앞으로도 기자들의 노력이 더 많은 학우의 마음속에 흠뻑처럼 남아가 심어지는 서경대신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 신문사의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26대 우연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고우리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26대 우연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군사학과 21학번 고우리입니다. 먼저,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는 7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본교의 발자취를 심 없이 기록해 왔습니다. 대학의 주요 소식을 전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대학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대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구심점으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크고 작은 교내 행사마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본교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신문사 기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문사는 매 순간 본교의 동반자로서 서경대학교의 발전을 함께할 것입니다. 신문사가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정한 언론의 역할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 서경대 신문사의 신문은 매호마다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 통찰력 있게 분석된 고품질 높은 기사를 게재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9주년을 기념하며 한 편집장님, 부편집장님들 비롯한 모든 정기자, 수습기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난 69년간 쌓아온 명성과 역사를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신문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33대 불패무적 이공대 정학생회장 이현성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33대 불패무적이공대 정학생회장 토목건축공학과 20학번 이현성입니다. 먼저,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서경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교내외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학우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신문사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공로는 서경대학교의 진정한 자부심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학기는 이공대뿐만 아니라 서경대학교 전체에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입생 문화제부터 이공체전까지 많은 행사가 진행되면서, 그 현장에는 항상 신문사 기자들이 취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을 기사로 담아내는 신문사 덕분에 서경대학교 학우분들이 학교생활을 더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학우가 있더라도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24년의 하반기가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학우들을 위한 다양한 학교 소식과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 학우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신문사가 되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문사 창간 69주년을 축하드리며,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오랜 역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불패무적이공대는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제26대 통합 올림 예술대 정학생회장 하예빈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26대 통합 올림예술대 정학생회장 디자인학부 20학번 하예빈입니다. 먼저,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사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코로나 이후 모든 행사가 완벽하게 회복된 지금, 행사의 시작과 끝에 늘 함께해주시는 신문사 편집장님, 부편집장님, 그 순간들을 담아주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입학식에서 대동제까지, 다양한 행사에서 언제나 열정적인 발걸음으로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내시는 기자님들을 보며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내의 다양한 소식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주시는 신문사 덕분에 서경대학교 학우분들의 학교생활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내의 소식 이외에도 사회적인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어으로써 학생들이 넓은 시야를 갖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신문사가 있기에 우리 학교와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문사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교내 소식 전달이 우리 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며 늘 같은 자리에서 학우들의 소통 창구가 되는 신문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나 서경대학교 학생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40대 서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송유진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40대 서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아동학과 21학번 송유진입니다.

총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여, 신문사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대학의 역사와 함께하며,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 다양한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는 신문사의 노력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69년 동안 서경대학교 신문사는 학생과 교직원, 동문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대학 공동체의 중요한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 덕분에 신문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역할을 넘어,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신문사와 총동아리연합회는 서경대학교의 자치기구로서,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활발한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대학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리 알림제 때 신문사 여러분께서 보여주시 세심한 취재와 보도 덕분에 우리 동아리들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총동아리연합회는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진실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보도를 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신문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대학의 동아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모든 학생이 풍부한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9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신문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경신문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69년간 서경신문은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신리받는 정보를 제공하며 서경대학교의 등불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경신문은 학내의 다양한 정보 전달 외에도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찬반 논쟁의 팩트

체크로 여론의 균형각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 간의 소통을 증진하는 중요한 언론의 역할로 학생 그리고 교원과 교직원 모두의 눈과 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은 학생인구의 급감소와 기술의 빠른 발

전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신문은 구성원 간의 소통과 정보 전달 면에서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서경 신문은 지금의 중요한 시기에도 변함없이 정론직필(正論直筆)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발로 뛰는 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서경 신문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 대학의 소중한 기록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경신문 창간 69주년을 축하합니다.

방미영 (서경대신문 주간)



편집장 송민경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8대 편집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21학번 송민경입니다. 올해 5월 23일로 서경대 신문사가 창간 6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본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1955년 창간 이래, 서경대신문은 학우 여러분의 희로애락을 가장 가까이에서 담았습니다. 2021년, 신문사에 입사한 후로 오랜 역사를 써 내려가는 현장의 가장자리를 이룰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편집장으로서는 맞는 서경대신문의 '창간 69주년'이란 실로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이제서야 막중한 책임감으로 짓눌렸던 어깨를 한 번 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노심초사하며 숲한 근심과 걱정으로 지새운 날들이 많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걸 놓아 버리고 싶을 때도 분명 있었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대로 안고, 임기 끝까지 잘 해쳐 나가려 합니다.

올해는 지금껏 신문사에 있는 동안 겪지 못했던 일들을 온몸으로 견디다 보니 유난히 비뚤었지만, 격변하는 가운데 신문을 발행하는 일련의 과정 덕에 오히려 단단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문사의 가장 선배로서, 책임자로서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위해 두 다리, 두 발, 그리고 열 발가락까지 힘주고 푹푹이 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푹푹이 걸어오셨던 저 역시 푹푹하게 기자들과 함께 발맞춰 걸겠습니다.

남은 한 학기 역시 부지런히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기자로서 좋은 신문 만들겠습니다. 편집장 송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편집장 김나연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8대 부편집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일어전공 김나연입니다. 서경대 신문사의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신문사를 위해 열심히 임해주시는 편집장님, 정기자분들, 수습기자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수습기자가 되고 처음 쓴 작년 창간 기념 축사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막 기자가 되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에 지금의 제가 힘을 얻게 되더군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일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어딜 가든 기사 쓸 거리가 될 만한 것은 눈여겨보고 사진을 찍어두거나,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신문을 보면 괜히 마음이 아픕니다. 전공 교수님은 저를 마주할 때마다 신문사 얘기를 건네시곤 합니다. 입학과 동시에

신문사 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제 대학 생활을 되돌아보면 오직 신문사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문사는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신문사의 일원이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서경대의 크고 작은 변화들과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의 그림자 아래 가려진 약자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응원하게 됐습니다.

현재 서경대 신문사는 침체했던 코로나 시기의 여파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 걸음 물러나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자 김나연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8기 정기자 아동학과 김나연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멋모르고 썼었던 수습기자로서의 축사가 아직도 가끔씩 생생합니다. 그런데 정 기자로 축사를 쓰는 날이 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기자가 됐다는 것은 제가 신문사에서 활동한 지도 어언 1년이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신문사 표어에 맞게 제가 정말 '발로 뛰는' 기자였는지를 되짚어봤습니다.

취재하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열심히 발로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 와서 저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니 그리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발행 후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았고 이게 최선인지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타 학보사 친구들과 교류하며 제 실력이 친구들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못내 슬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기사를 써야 했고 그러려면 취재해야 했고, 취재는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기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앞으로도 더더욱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는 기자가 되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본지를 읽어주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창간 6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없다면 본지도 교내 소식지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70, 80주년을 넘어 100주년까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든 독자분과 함께하는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자 유지우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8기 정기자 아동학과 유지우입니다. 가장 먼저,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 신문사의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3월 신문사에 입사했고, 어느덧 1년이 지나 정 기자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신문사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활동이었습니다.

수습기자 시절 선배 기자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던 당시에는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고 막막해, 1년간 기사를 작성해 온 정기자 선배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 제가 올해 정 기자가 되고, 챙겨줘야 하는 후배들이 생긴 것이 아직 얼떨떨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부풀어, 더욱 완벽한 기사를 완성해내려는 욕심도 커집니다. 학교생활과 신문사 활동을 병행하며 힘든 부분도 있었고, 제 기사에 만족하지 못해 좌절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과정에서도 매호 하나하나가 완성이 될 때마다 느낀 뿌듯함과 성취감은 훗날 사회에 나가서도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경대 신문사 69년의 발자취 속 1년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남은 한 학기도 신문사와 함께하며 대학 생활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려 합니다. 함께 발로 뛰는 동료 기자분들, 신문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학우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축사를 마칩니다.

수습기자 김경민



안녕하세요, 제68기 수습기자 김경민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서경대신문이 무려 예순아홉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 서경대신문이라는 언론 역시 진정으로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열쇠가 바로 '변화'라 믿었습니다. 과감한 도전을 통해 거듭 변하는 것이야말로 신문의 성장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신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 년에 총 10호를 꾸준히 발행하고, 신문사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 이 또한 우리 신문이 진정 살아 숨쉬기 위해 없어서 안 될 정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서경대신문의 성장과 성숙, 모두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고 창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옛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신문이 언론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신문사 기자들의 노력만으론 채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서경 가족 여러분께서 독자로서 채워주실 수 있는 빈틈입니다. 서경대신문, 그리고 신문사에 늘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판과 칭찬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서경대신문이 향후에도 학내 소식지이자 쌍방 소통 창구로 기능하길 소망하며, 저는 지성 언론을 위해 성실히 뛰겠습니다.

수습기자 이나연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8기 수습기자 물류시스템공학과 23학번 이나연입니다.

올해로 서경대 신문사가 창간 6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학교의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는 신문에 저도 한 자락을 남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신문사에 입사한 지 벌써 일 년이 다 되어갑니다. 단지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지났지만, 기자로서 활동하는 동안 글을 쓰는 것 외에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 독자들에게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은 저에게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글쓰기 기술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과 이를 담는 깊이 있는 시각을 배우는 계기였습니다. 또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동료 기자들을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축사를 작성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항상 신문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는 독자들이 있기에 신문도, 기사도, 기자도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경대 신문의 창간 69주년을 축하합니다. 학교의 유일한 언론 기관인 서경대 신문이 오래도록 명맥을 이어가며 앞으로 더 많은 기록들을 담아갈길 응원합니다.

수습기자 이재근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8기 수습기자 이재근입니다. 서경대 신문사 창간 6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수습기자로서 축사를 쓸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축사를 써 내려가는 제 마음은 격세지감의 심정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학하고 5년이 지났을 뿐인데 학교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녹색의 운동장과 학교 식당들, 변화한 서경대학교를 보면 대학생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느껴집니다.

다음 학기로 서경대학교에서 제 배움은 결실을 맺고,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는 것도 이번 학기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직 쓰고 싶은 기사가 많은데 떠나려고 하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신문사실 창고를 들여다보다가 '서경대 학교' 시절의 기사들을 읽어보았고, 그중 서경대 신문사의 전신인 국제대학교의 창간사를 발견했습니다. 1955년 5월23일,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학원의 정화와 청년학도의 생산한 정신을 도야하며 자유로이 학원을 비판하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여... 학보가 맡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선배 기자님들께서는 여러 차례 학교와의 마찰로 발행이 지연되기도 하고, 신문구독료 문제로 빚속에서 시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와 노력 덕분에 지금의 서경대 신문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의지를 잇는 서경대 신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 창간 69주년을 축하합니다.

수습기자 전준혁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8기 수습기자 전준혁입니다.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 신문사의 69주년을 축하합니다.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신문사의 현재에 함께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신문사의 일원이 되어 자부심을 느끼며 신문을 만드는 데 있어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문사 입사 후 주위 동료 기자분들을 보며 참 많은 귀감을 받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신문에 헌신적인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 나가는 당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해 마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했고, 같이 신문의 한 면 한 면을 채워 나가는 과정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저라는 사람이 한층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서경대 신문사의 이음에 누가 되지 않게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9년간 신문을 읽어 주시는 학우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글이란 읽는 이가 없으면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학우분들을 위해 신문이 존재하는 동시에 학우분들 덕분에 신문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69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무궁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자 강예진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9기 수습기자 광고홍보콘텐츠학과 강예진입니다. 먼저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69기 수습기자로 신문사에 들어와 신문사 창간 69주년을 축하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문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신문사의 존재만 알았지, 치열하고 세세한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신문사에 합격해 수습기자 활동을 하며 발로 뛰는 지성 언론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 주제 선정부터 수정까지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유익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경대 신문사를 거친 기자분들도 각자의 고민과 열정으로 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고를 알기에 서경대학교 신문사 창간 69주년이 더욱 빛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수습기자를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기존 기자분들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도움을 바탕으로 기자의 본분을 다해 학우분들께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교내 소식과 더불어 사회면, 문화면 등 다양한 면으로 유익한 기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자 활동에 정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69주년에서 나아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서경대학교 신문을 기대해 주세요. 빛나는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며,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 창간 69주년을 축하합니다.

수습기자 박상현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9기 수습기자 박상현입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습기자로서 창간 69주년이라는 자리에 함께해 매우 기쁩니다. 본교의 유일한 언론 기관인 신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알리는 서경대 신문사가 69년을 넘어 더욱더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구성원으로서 그 무게감을 알고, 서경대 신문사와 더 나아가 서경대학교가 멋지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가치는 언제나 진실성,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일 것입니다. 저희 신문사는 이러한 가치를 꾸준히 지켜오며, 많은 시간의 흐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한 언론의 모범으로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선배 기자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축사는 단순히 69년이라는 영광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도전과 성장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발로 뛰는 지성 언론'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직접 뛰며 공정하고 진실하게 보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며,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자, 신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습기자 신가은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9기 수습기자 경영학부 신가은입니다. 교내 유일 언론 기관인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9주년을 축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우선 신문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극적인 문구나 짧은 영상 매체에 밀려 신문을 찾지 않는 현실을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이 다소 딱딱한 활자로 느껴져 괜히 멀리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저 또한

신문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신문을 즐겨보지 않았으나 직접 기사를 작성해 보며 신문의 역할이 단순히 정보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가볍게 접할 수 있으나 깊고 묵직한 신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신문사 지원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문은 교내 소식을 전달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분야의 사회 이슈와 더불어 흥미를 이끌만한 쉽고 재밌는 기사까지, 다양한 경로로 독자분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신문 한 호가 발행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듭니다. 그렇기에 지난 69년간 신문 발행을 위해 애써오신 기자분들의 노고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더하여 '발로 뛰는 지성 언론'에 걸맞은 열정으로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공정한 진실만을 보도하는 기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9주년을 축하합니다.



서경대신문 창간 69주년 '명예의 전당'

>>>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22대	23대	24대	25대	26대	27대	28대	29대	30대	31대	32대	33대	34대
1955	문갑룡	김병태	미상	송선환	송선환	한구웅	노광국	김남수	양성두	박철규	이원기	신인균	김홍일	김부히	이광배	이광배	김필연	최선주	김용팔	박한서리	정재섭	문정호	오묘순	이희석	김흥배	신인균	양건식	허순영	이승희	장문현	윤미숙	김영호	이현구	김나경

1955년 5월 23일 국제대학보 창간

위기의 대학언론, 되살릴 수 있을까? 30년 전부터 지적된 대학언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초 고려대학교에서 '2024 대학언론인 콘퍼런스'가 열렸다. 행사에는 위기에 공감하는 전국 대학언론인들이 참석해 열린 논의를 펼쳤다. 대학언론은 학내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력난과 함께 학교의 재정 감축

으로 더 이상 대학언론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학생들은 교내 신문을 읽지 않고, 신문사 기자 역시 사명감이 사라진 지 오래다. 더군다나 학내 신문사는 돈만 축내는 학교의 '골칫덩어리'로 자리잡으며, 스스로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다. 대학언론이 과연 위기를 극복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어려움에 당면한 1990년대부터 지속됐지만,

강산이 세 번 바뀌도록 위기는 대학언론 뿌리깊이 잔재했다. 이러한 시류에도 불구하고, 올해로 창간 69주년을 맞이하는 서경대신문의 역사를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자 본 특집 기사를 기획했다. 더불어 창간 69주년을 맞이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며, 이렇게나마 서경대신문의 발자취를 남긴 기자 선배님들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한다.

☆ 기자들이 뽑은 서경대신문 BEST 기사 ☆

[301호] 1994년 4월 14일 <1면>
사랑받는 학보 만들기 _제37대 편집국장 이명순

'신문=역사' 지금도 서경의 역사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신문지면을 대한다. (중략) 다만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은 학보를 지켜보는 독자들. 나의 판단이 그릇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독자의 눈이다. 신문지면을 통해 학내 곳곳의 모순을 들춰내고, 이를 고쳐주도록 강제해낼 것이다. 학원의 3주체의 목소리를 울리게 대변하는 서경대 학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학우들의 관심속에서 독자에게 사랑받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뛰어나가는 후배 기자들의 뒷모습이 새삼 아름답게 느껴진다.

본지가 무관심한 학내 분위기는 '우물 안 개구리'를 만든다. 옳고 그름을 따질 바깥의 시선, 바로 그 독자의 눈이 간절하다. 독자를 위하여야 하는, 독자의 입이 되어야 할 본지는 과연 그 역할을 해냈는지 자문해 본다. 제37대 편집국장의 다부진 결의가 제68대 편집장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342호] 1998년 11월 10일 <대용인의 민주광장>
내가 학교를 싫어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 _이훈

(선략) 건물내부의 망가진 곳을 공사하기 보다는 남들이 보는 외관만을 새것으로 덮어 씌우는 행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물어보고 싶다. /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라는 곳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싶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과연 사회에 나가서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100% 가능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 이렇게 말한다고 학교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학생조직을 예로들어 보자. (후략)

민주광장은 독자 투고란이다. 이곳에 실린 독자의 글이 매섭다. 문장 첫머리, "학우들(학교를 사랑하고 진취적으로 사는)에게 먼저 양해를 바라면서" 더 나은 학교를 위해 학교와 학생조직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학교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를 나열하면서 학교도 총학생회도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누구보다 학교를 아끼는 마음이 드러난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기 꺼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모습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419호] 2009년 8월 31일 <만곡식적>
대학 본연의 임무 _김윤미

이제는 시대가 변해 대학에서 순수하게 학문을 공부하기 어려워졌다. 2008년에 공무원 양성을 목표로 법학과와 행정학과를 통합해 공공인적자원학부를 신설했고, 인문대의 각 어학과를 합쳐 국제비즈니스어학부로 통합시켰다. 대학은 취업 준비 기관이 아니고 학문을 하는 곳이다.

올해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겪은 터라, 15년 전의 학과 통합이 기사가 더욱 와닿았다. 필자 또한 대학은 '학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장과의 담화에서 들었던 말이 떠오른다. "순수 학문을 하고 싶으면 다른 대학에 갔어야지, 알고 온 것이 아니냐?" 서경대뿐만 아니라 타 대학들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점차 취업을 위한 전공을 만드는 추세다. 대학 본연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취업 준비 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424호] 2010년 4월 7일 <대용인민주광장>
나는 오타쿠다 _김봉겸

사람들은 취미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들을 '오타쿠'라 칭하며 경멸한다. 당신은 지금 동종한 몸매 5대 5 가르마, 뿔테안경을 쓰고 숨을 가쁘게 쉬는 사람을 떠올렸는가? 일본어인 오타쿠의 뜻은 '무언가에 매우 열중하는 사람'으로, 모임 자리에서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다. 개인의 취향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일어전공인 필자는 이 기사에 깊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어를 배우기 전 애니메이션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보기 시작했고, 어느새 '오타쿠'가 되어있었다. 그러자 전에는 듣지 못했던 선입견의 말들이 들려온다. 그러면 나는 '그런 오타쿠'는 아니라며 변명한다. 어쩌서 사람들은 무언가에 깊게 열중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숨기려고 했는가? 애니메이션은 수많은 취미 중 하나일 뿐이다. 선입견에 사로잡힌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 또한 선입견에 당당히 맞서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503호] 2016년 11월 21일 <보도>
초록운동장을 밝힌 40개의 촛불 _강동극

얼마 전 '최소실 사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전국의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의 물결이 일었다. 이에 '나라를 걱정하는 서경인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지난 4일 시국선언이 진행되었다. (중략) 이번 교내 시국선언은 학칙으로 인해 그 준비와 진행이 순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회는 서명운동으로 동참한 440명의 학우들과 집회에 직접 참여한 40여 명의 학우들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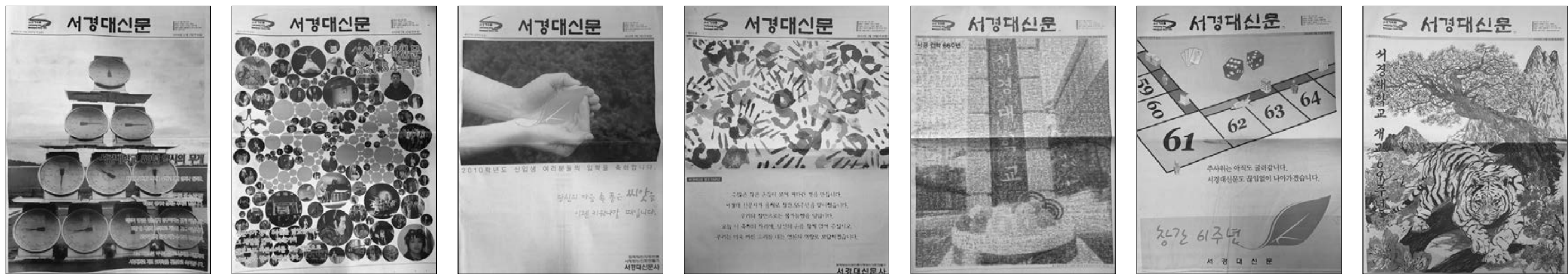
본 기사가 발행될 시기 중학생이었던 필자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견학을 갔었다. 당시 현장에서 느꼈던 국민의 분노와 민주주의의 물결을 떠올려보면 아직도 가슴이 뻐다. 본 기사를 보고, 우리 학교 선배들이 자주적으로 나라를 위해 움직였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우리도 나라가 어려울 때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학우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하며 본 기사를 소개한다.

[534호] 2019년 6월 10일 <여론>
노인 운전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한종욱, 윤다현

지난 12일 (5월 12일) 경남 통도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대규모 인파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중략) 전 세계 공통의 화제인 노인 운전 제한 찬반 여론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찬성 입장: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 고려, 자동화 및 건강검진서 제출 ▲반대 입장: 관심과 배려, 연령차별

본 기획면 취재 중,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으며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고 운전자인 차모씨는 만 68세로 고령운전자에 속한다. '운전 미숙'과 '급발진' 등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고로 인해 또다시 노인 운전 제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필자는 '만약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됐다. 학우들도 과거의 이슈와 현재의 이슈를 비교해 보기를 본 기사를 통해 권해본다.





1994년 4월 301호 발행

1999년 '서경대신문'으로 제호 변경, 346호 이후 2000년까지 발행 중단

2023년 5월축제 기념 569호 지면 발행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유종규	문순하	이명순	박정선	구선영	노상순	양정화	변익환	최유림	이준희	박희영	김민내	이승은	김성민	김성민	이지훈	김윤미	유가인	유가인	이다정	구민지	최가빈	남지원	남민주	김소연	이소현	강동극	두어진	김지명	홍성현	조아림	이종은	이예은	송민경	2024

1992년 학원 민주화 투쟁 고조화 시기, 5개월간 제작 중단
 1992년 6월 300호 발행, 94년 4월까지 22개월간 발행 정지
 1992년 9월 '서경대학보'로 제호 변경

2001년 발행 재개, 350호 이후 발행 중단
 2003년 3월 다시 신문사가 꾸려짐
 2003년 6월 315호 발행
 2005년 5월 창간 50주년

2020년 코로나19로 발행 전면 중단, PDF 모바일 발행 시작
 2024년 5월 23일 창간 69주년

전 편집장님 인터뷰

제61대 편집장 국어국문학과 12학번 강동극

Q. 신문사 기자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계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단점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축제 기간에도 온전하게 즐길 수 없고, 체력이 있어도 취재를 나가야 하죠. 시험 기간을 고려해 발행주기를 결정한다곤 하지만, 굉장히 꾸준하고 성실해야만 공부를 할 수 있기에, 저는 시험 기간에 버락치기로 공부하곤 했습니다. 밤샘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에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는 데도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서 청운관 컴퓨터실에서 삼푸만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문사에서 활동한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를 통해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노력과 열정을 쏟으면서 하루하루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학생이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던 적이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제 청춘을 서경대신문사에 갈아 넣은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Q. 신문사 기자 경험이 추후에 도움이 됐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A. 어디 가서 글 쓴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모 언론사에 취직해 잠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기사 작성 속도가 느릴 뿐 글을 진짜 잘 쓴다는 말은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면 남들 30분, 1시간 고민해서 작성할 내용들을 10분, 15분이면 똑딱하고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Q. 지금 서경대신문을 만들어가는 기자들에게 제언해 주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A.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적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의 역할이 사회 교정이나 계몽, 고발에 있을 수 있겠으나 너무 그 역할에만 치중해서 누군가를 적지자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기자로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모두 훌륭히 역할을 하고 있으시지만, 인간관계나 공부에 지쳐서 신문사 활동에 소홀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딱 한 번만 같이 일하고 있는 기자들을 생각해 주세요. 다 같이 으쌰 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기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위에 다 말했으니, 재학생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서경대신문을 꾸준히 구독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었고, 이번 호를 처음으로 서경대신문을 접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어느 분이 됐던 간에 이 신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지치고 짜증나는 일도 많을 텐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단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몇 학번은 화석이니 석유니 하는 말이 지금도 있었지만, 12학번 아저씨가 보기에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노력만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63대 편집장 아동학과 17학번 김지명

Q. 신문사 기자일 당시 인상 깊은 기억이나 인상 깊은 취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수습기자 당시 처음으로 현장으로 취재를 갔던 쿼어 축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더운 여름 비가 조금씩 오는 곳은 날씨와 볏비는 인파로 모든 기자들이 지쳤고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 때였습니다. 선배 기자가 응원을 해주시며 먼저 두 발로 열심히 촬영을 하시는 모습에 감명받아 저도 비를 맞으며 취재하고 처음으로 인터뷰를 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함과 활기 참에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힘든 취재 후 발행된 기사에서, 학우들이 아닌 일반 시민과 처음으로 한 인터뷰가 실린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생한 묘사와 사실적인 모습 전달이 가능한 현장의 맛과 기자의 매력을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Q. 신문사 기자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계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장점은 신문사 기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험들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교내의 소식을 접하며 교외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자 신분이 아니었다면 접근하기 힘든 곳까지 방문할 수 있어 더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생동감과 경험들은 지금까지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마감에 대한 부담입니다. 학업 수행이 주된 대학교에서 신문사 업무들을 수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지켜 기사를 완성하기는 쉽지 않았습다. 기회 회의를 하고 한호의 신문이 발행되는 동안은 심적 부담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기자 시절에는 선배들의 토닥임, 편집장 시절에는 후배 기자들의 열심히 하는 모습에 책임감과 위로를 느껴 기자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Q. 신문의 역할이 줄어드는 요즘, 우리 서경대신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최근에는 읽는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신문을 접하는 독자들의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렵지만 때때로 새로운 미션을 설정하고 그 미션을 독자들의 피드백과 함께 수행해 내는 것이 사랑받는 신문사가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독자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 흥미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진행, 독자 기고를 늘리는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로 학우들에게 신문사와 신문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당장의 미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독자들의 요구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성장하는 길이 신문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Q. 지금 서경대신문을 만들어가는 기자들에게 제언해 주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 감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저 드리고 싶은 말은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기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부담이 커진 시기에 기자들과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고 개인적인 마음의 재충전을 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64대 편집장 문화콘텐츠학과 19학번 홍성현

Q. 신문사 기자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계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글쓰기 경험과 원고료입니다. 또, 신문사가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동기, 선배들과 교류하면서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아리랑 업무적 성향이 짝은 신문사랑은 결이 다르니까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든 이 신문이 얼마나 가닿는지 체감하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신문을 보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싶은 아쉬움이 온라인 발행 이후엔 더 강해졌어요. 지면 발행 때엔 그래도 건물 로비마다 신문이 배치돼 있었으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계속한 이유는 신문사 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MT도 가고, 밥도 자주 먹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거 같아요. 저 이후로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Q. 지금 서경대신문을 만들어가는 기자들에게 제언해 주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신문을 직접 만들어 가시는 현직 기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신문에 있던 때에도 이런저런 아쉬움이 참 많았으니, 여러분들도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을 갖고 계시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편집장분들이 전해주시는 조언과 함께, 모든 기자가 모여서 방향성이나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제가 편집장 때 그렇게 할 걸 그랬네요... 딱 한 가지 있다면 언젠가 지면 발행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홍보(신문사를 알리는) 효과가 꽤 좋거든요.

Q. 신문사 기자일 당시 인상 깊은 기억이나 인상 깊은 취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제가 편집장을 맡았던 2020년은 정말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사상 초유의 비대면이 시작됐고, 학교는 학생들의 관심이 떨어진 틈을 타 다양한 학과의 통폐합을 주도했습니다. 신문사에 계신다면 여실히 체감하셨겠지만, 우리 학교는 사실 예술대 외 타 단과대 재학생들의 장애 보장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20학번을 끝으로 문화콘텐츠학과는 사라지고 광고홍보콘텐츠학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여기서도 학생들과의 논의 부족은 물론이고 이후 커리큘럼 보장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이 문과 통폐합 사건이 다른 학과 통폐합 반면교사 사례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단과대가 사라지거나 학과가 통합되거나 할 때마다 당시 문과 학우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발견합니다. 당장 저희 직속 후배인 광고홍보과 과 통폐합에 직면하면서 선배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담당해서 간담회를 취재했던 당시 조금 더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보장 명문화하길 요청했다면 지금의 모습도 바뀌었을 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언론에 걸맞는 대학으로 성숙해야 할 때이다. 대학 발전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그 뜻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 서경대학보 제330호 특집 기사 발췌(1997년 5월 29일 발행)
 1955년 창간된 서경대신문은 긴 세월 동안 풍상고초를 겪으며 수많은 변화를 이뤘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서경대신문은

온라인으로 발행된다. 매호 발행 시 학과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이미지 파일과 링크를 전달한다. 홈페이지가 따로 없어 '서경대 신문사 공식 블로그'에 기사 전문을 올리고 있다. 명색이 신문사인데 온라인으로 기사가 발행되는 게 전부다. 이런 어려움에도 창간 69주년을 맞이한 명성에 걸맞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기자들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끝없이 고민하지만, 학우들은

본지를 읽는 커녕 우리 존재를 모를 뿐더러 학교 당국은 신경 쓰지도 않는다. 이에 대학언론의 위기에 앞서 대학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 속,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언론 기관으로서 본지에 대한 서경인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을 무수히 되뇌이며 정면직파하는 언론과 기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발로 댄다.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권리 . . .

장애인의 현실을 마주하다

“본인들은 장애인이 아니니 불편함을 잘 모르죠” . . .

휠체어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다

문화시설 및 각종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고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주하는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휠체어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

공연장 휠체어석 사용 경험이 있다는 A 씨는 휠체어석 이용 시 불편한 점이 있냐는 질문에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트로트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휠체어석이 보통 2층 이상에 위치하다 보니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고 공연 자체를 온전히 즐기기가 힘들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이나 공공장소 장애인 시설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물었다. A 씨는 “문화시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휠체어가 들어가고 나올 정도로 충분히 크지 않다. 보통 보호자와 함께 들어가지만, 내부에서는 혼자 휠체어를 돌릴 수 있어야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 많이 불편하다”며 협소한 내부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A 씨는 “이 부분은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서울 대부분 건물이 해당한다. 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설을 허가하고, 짓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 현실의 불편함을 모르는 듯하다. 정부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지어와 건물 허가를 내준다고 하니 대중 짓는 게 아닐까 싶다”며 여러 시설들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평소에 휠체어를 사용하며 불편한 점이 있냐는 질문에는 “밖에 나갈 때 혼자 휠체어를 끌려고 하면 도로가 오돌토돌하고 파인 곳이 많이 불편하다. 혼자 갈 수 있는 짧은 거리라도 도로 상태가 좋지 못해 보호자와 꼭 동행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 출처 : 광주드림

공연 예매를 진행한 A 씨의 딸 B 씨는 “좌석 선택만 휠체어석으로 지정하면 되니 예매 시 어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장애인 할인 적용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좋았다”고 말했다.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잘 보이는 좌석으로 예매해 주고 싶어도 지정석이다 보니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점, (영화관의 경우) 앞자리라 보니 안 그래도 신체적으로 불편한데 목까지 아프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공연장에서 관객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현장 직원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서울의 모 공연장에서 근무했던 C 씨는 “어떤 공연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휠체어 이용객들이 꽤 계신다. 보통 그중 뮤지컬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휠체어석을 이용하지 않고, 좋은 자리를 예매해서 관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휠체어 이용객들이 주로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인과 휠체어석에서 보조 의자를 깔고 함께 볼 수 있는지 종종 여쭙는다. 휠체어석이 아닌 일반석을 이용하는 장애인 관객 분들의 경우 일반석에 자신을 옮겨줄 수 있는지,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공연 끝난 후 장애인 택시가 있는 곳까지 휠체어를 밀어줄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신다”고 전했다.

휠체어 사용자 및 공연장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문화·공공시설에서의 불편함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보행자 전용 도로, 경사로, 계단 하나하나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크나큰 장벽이다. 허울뿐인 장애인 배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실사용자인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해야 한다.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은 개인이 아닌 사회 모두에게 달렸다.

사회적 약자가 ‘약자’가 아닌 나라, 일본과 캐나다를 다녀오다

필자는 올해 일본과 캐나다 두 곳을 다녀왔다. 그곳에서는 휠체어를 탔다고 이동에 제약받는 사람도, 안내견 때문에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람도 없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배리어프리(Barrier-free)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는가? 말 그대로, 장벽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다. 물리적, 심리적 장애물을 제거해 사회적 약자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필자가 경험한 두 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가 잘 돼 있었다.

일본 지하철역 계단에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쉽게 볼 수 있었고, 버스도 장애인이 타기 쉽도록 유압으로 차체가 내려가는 저상버스였다. 뇌병변 장애 유튜버 ‘굴러라 구르님’의 일본 여행 영상에서, 휠체어를 탄 구르님에게 역마다 승무원이 먼저 발판 필요 여부와 하차역을 묻는 것을 볼 수 있다. 구르님이 발판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승무원이 발판을 깔아주고, 하차 역에서도 미리 발판을 준비했다. 휠체어도 계단식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오래된 관광지에는 다니기 쉽도록 휠체어 전용 도로가 있었다. 버스를 탈 때도 기사가 먼저 내려 좌석을 다 접은 뒤 발판을 깔아주고, 올라오기 쉽게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기도 했다.

캐나다에서는 독특한 경험을 했다. 휠체어를 탄 승객이 버스를 타려 하자 앞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사불란하게 일어나 뒤로 가서 서는 것이었다. 비켜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모두 불편해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 발판이 자동으로 나와 승객이 편하게 올라갔고, 기사는 승객이 휠체어를 잘 고정했는지 물어보고 천천히 출발했다.

캐나다를 여행하며 과학관 셔틀버스에서도 이 같은 일을 경험했다. 16인승 정도의 작은 버스였는데 유모차가 보이자, 기사가 바로 내려 뒷쪽의 리프트를 내렸다. 바닥에 내려간 리프트 위에 유모차와 사람이 올라타면 다시 리프트가 위로 올라오는 구조였다. 박물관과 같은 문화 시설 내부도 계단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휠체어 리프트가 존재했다.

특히 신기했던 건 출입문이었다. 비단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의 모든 출입문에 전자동 출입문 버튼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힘들게 문을 열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휠체어를 타고도 누르기 편한 낮은 위치에 버튼이 설치된 것을 보면 탁상행정이 아닌, 진정으로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이라 느꼈다.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세상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말 들어봤는가? 차체가 내려가는 저상버스여서 필자도 무거운 캐리어를 싣기 쉬웠고, 계단 주변엔 휠체어 리프트,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가 있어 이동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장애인, 고령자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만든 시설 덕에 모두가 한층 편해진 것이다. 사실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이나 캐나다에서 휠체어 승객이 탑승해 시간이 지체되거나, 불평하거나 걸으며 불편함을 터 내는 사람은 전혀 볼 수 없었다. 물리적 배리어프리가 아직 미흡한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심리적 배리어프리 해결이 더 시급한 문제 아닐까?

▲ 휠체어 눈높이에 설치된 자동문 버튼



지난해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4만2천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20명 중 1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의 입장에 맞춰져 있다. 다수에 속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소수의 어려움을 무시고 지나치고 있지 않았는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제도가 늘고 있지만 사회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단순히 장애인을 편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며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만이 아닌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 될 수 있다.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부터 공연, 경기 등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까지, 비장애인이 당연히 여기는 일상을 장애인이 그대로 향유하기엔 많은 불편함이 있다. 장애인에게 높은 장벽이자 비장애인에게 분명한 특권이다. 취재부는 장애인 공공장소·문화시설 이용 시 겪는 불편함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실제 휠체어 사용자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시설과 정책이 과연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선 어떤 장애인 배려가 실천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점점 늘어나는 장애인 편의시설, 그 실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 설치율은 79.2%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출처:에이블뉴스] 이러한 높은 수치가 실제 장애인의 확대된 편의를 보장하는지와 더불어 우리 주변에 어떤 장애인 편의 시설이 있는지 알아보자.

아무리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마련돼 있다 해도 가질 못하면 소용이 없다. 차별받는 장애인 이동권은 많은 투쟁과 시위를 불러일으키며 현재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먼저 버스의 경우, 장애인은 승하차에 있어 큰 불편함을 겪으며 아예 승차 거부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서경대 본관’ 정류장에 정차하는 1164번, 2115번 버스도 경사로 대신 계단이 설치돼 있어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하다. 또한 교통약자 탑승시설이 설치된 고속버스·시외버스는 전국에 단 한 대도 없다.

승강기·리프트 위치가 역마다 다른 지하철도 마찬가지다. 지하철 승강장 설치율은 높으나 접근법을 몰라 이용을 포기할 때도 있다.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는 이러한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환승 장소와 방법이 상세히 표시돼 있다.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을 전화, 문자, 인터넷, 앱을 통해 신청하면 자동 배차로 차량이 연결되는 지원제도도 있다. 대중교통에 비해 편리하지만, 차량수가 현저히 적은 데다 수도권을 벗어날 경우 호출이 더욱 어렵다.

축구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가 필수적이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돼주는 점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보도에 설치된 점자 블록과 더불어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점자 버튼, 공공기관의 장소별 점자 안내판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 그중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위에 노점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등 훼손된 채 방치돼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정비가 필요하다.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도 마련돼 있다. 서울 성동구 농아인 쉼터 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특화 도서관 ‘성동 공공 수어도서관’이다. 통역 서비스 지원, 음성-자막 변환용 C-사운드(SOUND) 안경과 스마트북, 농아인을 위한 도서 500여권을 비치하여 더 많은 도서 정보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하여 송암점자도서관, 평화도서관 등 농아인들을 위한 도서관이 생기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이 존재한다. 교육을 통해 비장애인의 무관심 속에서 장애인에게 상처를 안기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을 겪는다. 편의시설 증진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필수적 요건이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다.



▲ 출처 : 경인일보

낮은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있을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문화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건물이나 거리의 계단이나 여닫이 어려운 문과 같은 물리적 장애물은 문화시설 방문을 어렵게 한다. 현장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안내 서비스나 안내인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문화생활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 장애인의 ‘문화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다. 2021년 제정된 ‘문화기본법’ 법률 제4호 ‘국민권리’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의 문화생활 수준이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미흡하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여가 활동은 TV 보기가 88.2%, 휴식 72.8%, 컴퓨터 이용 18.2%, 취미나 자기 개발 활동이 15.0%, 봉사/종교/사회활동이 12.4%, 스포츠활동이 10.5% 순으로 사회적 여가 참여는 매우 부족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12월 2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59개의 시설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장애인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3년 10월 21일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에서 개최되는 공연과 행사들은 장애인석과 일반석을 구별해 판매하고, 현장·온라인·유선 구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이 실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이 향상돼 더 많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이동권’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2021년부터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동권 보장, 탈시설 지원, 교육 보장 등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예산 증액이다.

현재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환승, 연계체계 도입에 관한 법안이 2023년 1월 실행됐고,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사안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해선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 전장연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작은 터 하나에도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을 너무나 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모든 사람이 본인의 권리를 누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기사 오른쪽에 위치한 장애인 마크를 본 적이 있는가? 해당 마크는 뉴욕시의 장애인 마크다. 기존의 경직돼 있는 모습의 장애인 마크와는 달리,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장애인 마크의 변화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사회 속에서 장애인을 생각하는 인식 또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봤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엔 너무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피상적으로는 시선과 인식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진정으로 그들의 편이나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동 수단, 문화시설 접근성 등 실생활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본 기사의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 장애인 문화권과 편의 생활 보장을 위한 법안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본 기사를 통해 일상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그들의 온전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



주간칼럼



기억과 감사의 달, 6월!

주간 방미영 교수

6월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간이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리기 위해 우리는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6월 6일, 현충일은 그 대표적인 날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날이다. 필자도 이른 아침에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했다. 사실 요즘 태극기를 게양하는 집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 아파트 단지에 간혹 걸려있는 태극기를 보면서 바쁜 일상으로 인해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인지, 기념일이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필자는 국립 산청호국원에 모셔져 있는 부친께서 학도병으로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상황에 대해 많이 들어왔다. 부친께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용기와 기백이 필요한지에 대해 늘 말씀하셨기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오전 10시에도 어김없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랜이 울렸다. 이날 서울 국립현충원에서는 추모식이 거행되고, 전국 각지에서도 묵념과 함께 애국선열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우리 국민이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다. 보훈의 달은 단순히 과거의 영웅이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이 희생을 감수해야 했고,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가능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얼마 전 한국예술인총연합회 광명지회 소속 사람들과 강화 평화전망대를 다녀왔다. 강화 평화전망대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전망대이다. 이곳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마주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지난번 서경대신문 기자들과 함께 다녀온 파주 도라전망대와 달리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은 너무나 가까웠다. 개성까지 직선거리가 장 짧은 구간이 1.8km에 불과하다

고 하니 차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다. 날씨가 좋으면 고려 시대 왕건이 본거지였던 송악산(개성) 능선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날 동행했던 광명시향 수석지휘자는 부모님 고향이라며 눈을 떼지 못했다. 실험민의 애환은 평화전망대 근처 대릉시장에서도 그대로 느껴졌다. 지적에 고향을 두고도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실험민들이 서로 위로하며 살아왔을 대릉시장을 둘러보면서 필자의 손에는 어느새 사들인 물건들이 늘어났다. 보훈의 달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책임을 일깨워준다. 지금의 우리가 과거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지

아말로 보훈의 정신을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배우고, 그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6월 보훈의 달은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현재의 감사함을 느끼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마음속 깊이 새겨진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감사함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필자의 한가지 바람은 기회가 되는 대로 학생들과 강화 평화전망대, 파주 도라전망대 등 한반도분단 현장을 직접 탐방한 후, 보훈에 대한 청년토론회를 열고 싶다.

| 수습의 눈 |

북촌에서 하루를 보내는 방법

안국역 2번 출구를 나와 북촌로를 정면으로 마주한다. 내리찍는 햇빛을 선선한 바람이 중화해주는 탓에 북촌을 향하는 내딛는 발걸음이 가볍다. 북촌은 서울의 북쪽에 위치한 한옥 동네라는 뜻이다. 즉, 엄밀히 말하면 북촌 한옥 마을은 동어 반복이다.

한옥 마을을 위시한 북촌은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다. 필자는 이 고즈넉한 북촌을 거닐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글로써 풀어내 보려고 한다.

북촌로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차항기 듣는 집'이라는 전통찻집이 눈에 띈다. 예스러운 건물로 들어가 창가에 앉으면, 자그마한 창문 사이로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이들을 관조하며 보이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사장님과 담소를 나눈다. 항상 미소와 함께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사장님은 오월의 햇살보다 싱그럽다. 이윽고 건넌편에 위치한 정독도서관으로 향한다. 흰색의 도서관이 시선을 끌지만, 도서관 앞에 위치한 산들바람을 느낄 수 있는 정원이 이곳의 정수다. 흔들거리는 나뭇잎들을 아래에서 세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책을 읽는다. 나뭇잎 사이로 쨍한 햇빛이 기어들어와 책에 그림자 그림을 그린다. 허기가 진다면 오래된 담벼락을 지나 한 라면집으로 들어선다. 3명이 들어가면 비좁을 것 같은 작은 가게처럼 보이지만, 뒷모습을 들어가면 커다란 한옥이 뜨끈한 라면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 맛있게 먹은 뒤, 벽면에 새겨진 글귀들을 통해 수많은 추억과 이 가게의 역사를 훑는다.

북촌의 분위기를 향유하다가 큰 길로 걸어 나오면, 경복궁이 옆모습을 내비친다. 그곳 바로 옆에는 한옥 갤러리 '학교재'가 자리하고 있

다.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므로, 멋진 작품들과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몸과 마음을 식혀준다. 북촌에는 학교재와 같은 무료 화랑이 즐비하다. 전시 관람을 마치고 경복궁을 돌아 광화문으로 빠져나온다. 궁과 고층 건물이 절묘하게 합을 맞추고 있는 독특한 경관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권이다. 광화문서 20여분 간 버스를 타고 '윤동주 문학관'으로 향한다. 아기가기한 곳이지만 윤동주의 시를 사랑하는 이라면 그의 시상을 마음으로 느끼고, 깊은 고뇌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윤동주 문학관에서 몇 발짝 옮기면 '청운문학도서관'이 있다. 자그마한 분수와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한옥 도서관이다. 아주 시원한 바람이 드나드는 이곳에서 풍요로운 정취를 만끽한다. 근처에는 같은 번호의 버스로 갈 수 있는 '서울시립 미술 아카이브'도 있다. 조금 더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는 사람

들에게 추천한다. 백색의 큰 사유의장에서 미술 서적을 찾아볼 수도, 사고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광화문으로 돌아와 주위를 배회하다 보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찾을 수 있다. 모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이곳의 8층 정원에서 경복궁과 광화문 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전경을 볼 수 있다. 노을의 붉은 빛으로 물드는 경복궁의 자태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퇴근 소리가 광화문을 가득 메운다.

해가 지면, 광화문을 비추는 불빛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낸다. 광화문의 불빛은 정계천의 잔잔한 너울에 비춰 아른거린다. 그 아른거림을 따라 정계천을 건너다 인사동 거리를 향한다. 다양한 가게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것들을 팔고 있다. 곳곳에 외국어 대신 적혀 있는 한글이 정겹다. 그곳의 북촌 순만두와 함께 허기를 달랜 후, '뮤직 컴플렉스 서울'에 당도한다. 이곳은 시

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LP들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LP 카페다.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 1인석도 마련돼 있다. 평소 자주 들던 음악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앨범에 눈을 뜰 수도 있다. 창문을 통해 종로의 야경을 바라보며 흥겨운 노래를 즐긴다. 리듬을 타는 손가락이 아파질 지경이 되면, 이제 여행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집을 향해 지하철에 오르는 나에게 아쉬움은 없다. 일상의 번주함에 지쳐 고요를 원하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북촌을 찾을 것이고 북촌은 언제나 나를 아늑하게 맞이해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새 북촌은 내 두 번째 고향이 된 기분이다.

전준혁 수습기자

(nicejackkyhu@naver.com)

| 수습의 눈 |

초공정의 힘 '원영적 사고', 그냥 '정신 승리' 아닌가?

살다 보면 불행에 맞닥뜨리곤 한다. 누군가는 좌절하기도, 누군가는 불행을 딛고 성장하기도 한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불행에 대처하는 태도에 대한 '땀'이 주목받고 있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의 초공정적 사고인 '원영적 사고'가 그것이다. 유명 빵집에서 줄을 서다가 본인의 차례가 되어 빵이 떨어지자 장원영은 이렇게 말한다. "앞사람이 제가 사려는 빵을 다 사 가서, 너무 렉키하게 제가 갖 구운 빵을 살 수 있게 됐지 뭐예요?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야". 이는 더 오래 기다리게 돼서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임을 '렉키'한

상황으로 해석한 것이다. 불행에 대처하는 이런 태도는 불운한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은어 '정신 승리'와 유사하다. '정신 승리'는 실제로 패배하거나 실패했지만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패하지 않았다고 정당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신 승리의 대표적 예시는 이슬우 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다. 보기에 잘 익은 포도를 발견한 여우는 그것을 먹고 싶어서 따 보려 하지만 포도가 너무 높이 있어서 발이 닿지 않자 포기한다. 결국 여우는 "저 포도는 시어서 맛이 없을 거야"라고 정신 승리를 감행한다.

예시를 놓고 보니 '원영적 사고'와 '정신 승리'는 무언가 다르다. 만약 '여우와 신포도' 속 상황에서 여우가 '원영적 사고'를 장착했다면, "포도를 못 먹어서 날선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됐잖아?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넘겼을 것이다. 적어도 '포도는 실 것이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다.

최근 불행과 실패에 대한 마음이 집에 관련된 밈이 자주 등장했다. '오히려 좋아'부터 '중꺾매(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원영적 사고'까지. 그만큼 사회에 불행과 실패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다.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실패가 두려워 일도 공부도 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냥 쉬는 '니트족'이 8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일까?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실패가 예정된 싸움을 피하고자 하는 방어기제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이나 고수의 직종이 아니면 패배자로 낙인 찍는 사회에서 마치 이슬우 화의 여우처럼 "어차피 떨어졌을 거야, 쉬는 게 이득이야"라며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정신 승리가 정신적 고통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현실

승리'를 이룰 수 없다. 정신 승리와 다르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회와 행운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원영적 사고'다. 꼭 누군가 만 들어 낸 마음가짐일 필요는 없다. '현실 승리'를 하기 위한 나만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행에 대처하는 독자들의 '나만의 사고'는 무엇인가?

이재근 수습기자

(worm1207@skuniv.ac.kr)

| 수습의 눈 |

e스포츠, 과연 스포츠인가?

최근 몇 년간 e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며, 전통적인 스포츠와 비교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23년 아시안 게임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 e스포츠가 채택됐다. 대회에서 대한민국 e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군 면제를 받았고, 이에 'e스포츠는 진정한 스포츠인가?'라는 물음이 수면 위로 조금씩 떠올랐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스포츠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 경쟁하고, 이를 통해 건강 증진과 팀워크, 스포츠맨십 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

다. 하나 e스포츠의 경우 신체적 활동보다는 정신적 집중과 전략적 사고를 요구한다. 체스나 포커와 유사하게 팀워크, 전략, 반사 능력 등 다양한 스포츠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회는 엄격한 규칙 아래에 진행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e스포츠도 스포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e스포츠가 진정한 스포츠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존재한다. 2024 e스포츠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DDoS 공격은 특정 서버나 네트워크에 과도한 트래픽을 유도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

한다. 이런 공격으로 인해 많은 경기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프라인 서버를 도입하고, 경기를 사전 녹화하여 방송하는 등의 조치를 했지만,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임 판도에 고의적 방해 공격을 할 수 있는 DDoS 공격이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게임사의 밸런스 조정이 e스포츠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큰 논란거리다. 게임 패치는 종종 개발사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이뤄지는데, 이는 선수들이 일정 기간 연습해 온 전략을 무효화하거나,

특정 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패치는 스포츠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 스포츠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경기장 관중 난입, 이물질로 인한 경기 지연 등의 문제는 다른 스포츠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이슈이다. 규칙의 변경 또한 모든 스포츠에서 일어나며, 이는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e스포츠는 이제 막 전통 스포츠와 같은 지위를 얻기 시작한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규정 정비, 선수 보호, 공정한 경기 환경 조성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다. e스포츠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진정한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상현 수습기자

(pasahy@skuniv.ac.kr)

만/파/식/적

차근차근 하나씩

이번 호를 위해 공을 들였다. 특히나 기획면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드디어 신문사에서 줄곧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던 창고를 뒤진 것이다.

우선 하얗게 내려앉은 먼지를 뿌옇게 일으키며 케케묵은 신문과 타 대학 신문, 각종 서류철을 조금씩 꺼내 밖으로 옮겼다.

"이걸 언제 다 정리하지?" "버릴까?" "일단 놔두자" 이번 기획 기사를 작성한 나연이와 재근이, 그리고 나까지 셋이서 에어컨도 안 되는 창고를 드나들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땀이 뻘뻘 흘렀다.

먼지로 뒤덮여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신문들을 꺼내어 발행일 순서대로 정리했다. 누렇게 바랜 신문을 넘기며 읽자니 감회가 새로웠다. 신문에 실사한 이래로 '진짜 정리할걸, 언젠가 해야지' 하고 미뤘었던 것들이 안일한 지난날의 마음을 들추었다.

그러다 하나둘 자료를 발견하자 언제 힘들어했냐는 듯, 연신 "이것 봐, 이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언제부터 바뀐 거지?"를 외쳤다. 보물창고 같았다.

창고가 이미 꼭 차 있던 상태라 매초 최소 수령만을 남겨두기로 했다. 종이신문을 발행하던 시절, 묶은 끈이 채 풀리지도 않은 신문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같은 신문만 여러 묶음이었고, 다섯 묶음도 있었다.

발행 과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무지 안타까웠다. 신문이 발행됐는데 배부되지도 못하고 빛바래고 있다니. 코끝이 찡하고 알싸했다. 내 손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 역시 속상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만 했다.

현재 서경대신문은 2020년 이후 지면 발행이 전면 중단돼 PDF 파일로 발행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종이신문이 남아서 버려지는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심지어는 신문사 홈페이지도 없어 블로그를 통해 기사를 올리고 있다. 가족이나 우리의 존재를 모르는 학우들도 많은데, 열심히 작성한 기사를 전할 제대로 된 창구조차 없다.

체계도 없다. 그러다 보니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신문사 기자로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속속들이 문제가 드러났다. 원래 사적이 있기는 한 건지, 있었다면 언제부터 인수인계나 개정이 중단된 건지 감도 안 잡혔다. 그러나 다행인 건, 신문사실에 현존하는 신문과 자료를 낱낱이 찾아보니 우리 신문사가 근본 있는 신문사라는 것.

지금 서경대신문은 사칙 개정과 함께 사내 체계 정립을 위해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체계가 잡히면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고민하는 지점이 차차 줄어들어 운영이 수월해질 것 같을까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공사 구분을 위해 협업을 잔디와, 아가이방을 위해 노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급작스러운 변화에 익숙지 않지만 모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만 어렵지 손에 익으면 분명히 도울법 거라 생각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하루빨리 체계를 바로 세우고, 더 나은 신문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지 다짐한다.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신문의 미래를 위하여, 차근차근 하나씩.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사설

돈 안 되는 학문... 없애면 그만?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들이 인기 학과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취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인문계열 학과들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에서는 인문학 관련 학과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필수 인문학 교양 과목마저 폐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회는 2025학년도부터 덕성여대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에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학교법인 명지학원도 명지대 철학과 폐과를 의결했다. 명지학원은 지난 2022년 말에 물리학과, 바둑학과, 수학과, 철학과 폐과 및 사학과를 미술사학과로 통합하는 개편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방 대학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2022년 한국연구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 많은 대학에서 인문대학은 단과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학부의 전공 및 교양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대학 중 거점 국립대 정도에서만 인문학 학과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대는 나름의 전통과 규모를 갖춘 대학조차도 다른 단과대학과 통합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이러한 일은 이미 우리 대학에서도 일어났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어국문학과와 철학과는 2013년 '문화콘텐츠학부'라는 이름으로 통합됐고, 몇 년 뒤 후학과는 폐과됐다. 또한, 각자의 입지를 지키던 어문학과들은 2010년 '국제비즈니스어학부'라는 이름으로 통합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학과 전공 운영 실태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의 학과와 전공은 첨단 분야와 응용학문을 중심으로 개편됐다. 강덕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소재 대학의 학과 통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서울 소재 대학에서 인문사회계열 학과 17개가 폐지되고, 공학계열 학과는 23개가 새로 생겼다고 한다.

이처럼 대학들은 인문계열을 축소하고 이공계 학과를 늘리고 있다. 이는 이공계 및 상경계열 전공자들의 취업 수준과 연봉이 인문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인식과 주요 대기업에서 미래 산업인 반도체·자동차·전자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문학은 문화·삶·사회 등의 기반이 되는 학문이다. 여러 대학에서 괜히 인문학을 필수 교양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공계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학문을 폐지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는 아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 없는 전공이라고 폐지하는 것이 과연 옳을지 의문이다. 대학에서 해당 학문을 다루는 이유는 분명 존재할 것이다. 취업률이 높은 인기 학과만을 남기는 것이 학교의 올바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인기 학과를 단순히 폐지하기보다는, 이 학과들이 어떻게 미래 사회와 맞닿아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나연 수습기자

(yx0nd1@skuniv.ac.kr)

오늘의 책

오늘도 인생이란 길을 굴러간다 -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김창완



▲ 출처: 교보문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3년, 매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한 이가 있다. 1977년 록 밴드 '산울림'으로 데뷔한 김창완은 23년간 SBS 파워 FM '아름다운 이야기 김창완입니다'의 디제이로 활동했다. 2000년 10월 2일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일명 '하침창'은 2024년 3월 17일,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창완이 40대에 시작해 60대가 될 때까지 라디오를 진행해 왔기에 청취자들도 그를 친근하게 아저씨라 칭했다. 거창한 도전이나 끌어오르는 열

정을 말하기 보다, "뭐, 별거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아저씨의 담담한 위로는 사람들의 까칠한 아침을 부드럽게 다독였다. 이 책은 23년간 청취자들에게 답장한 편지와 매일 아침 직접 쓴 '김창완의 아침 인사'를 엮어 만들었다. 김창완은 인생의 일부를 차지한 라디오를 종영하며 눈물을 보였다. 수도 없이 연주했던 기타 선율이 유난히 구슬프게 들린 건 기분 탓일까. 하지만 청취자들은 안다. 김창완은 '꿀'이라고 가슴 아파하기보다 새로운 시작과 만남을 더 기대하며 우릴 다독일 거란 걸. 필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어느 날, 휴대폰이 고장 났다. 다른 기능은 멀쩡한데, 하루아침에 오직 인터넷 연결만 안 되는 것이었다. 고장 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한창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하루의 낙이었을 그 시절의 나는 절망에 빠졌다. 부모님은 공부할 시기에 마친 잘 됐다며 휴대폰을 바꿔주지 않으셨다. 고장 난 휴대폰에는 유선 이어폰을 꽂으면 들을 수 있는 FM 라디오 앱이 있었는데, 그날부터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내가 원하는 노래를 듣지 못하고 DJ가 틀어주는 노래를 들어야 하는 게 답답했다. 그런데 점점 모르는 사람들의 고

민과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니 고립된 내 마음이 세상과 연결돼 있다고 느꼈다. 고등학교 시절 살아갈 힘이 되어준 아침창은 학교를 졸업하고 새 휴대폰을 쓰게 된 성인의 내가 그들을 잊어버려도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추억은 두서가 없을뿐더러 기승전결도 없다는 김창완의 말은 내 머릿속에도 두서 없는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울산에 계신 할아버지가 생각나다.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셨던 병원 앞 중국집의 짜장면이 생각난다. 그러다 문득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울렁인다. 나도 몰랐던 사이 내 마음이 많이 치저나 보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울컥하는 순간이 많아 읽는 속도가 더뎠다. 기분은 날씨가 같아서, 맑은 하늘처럼 기분이 좋거나 비가 쏟아지듯이 우울해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저 찌그러진 동그라미다. 굴러가지만 하면 됐지, 찌그러졌다고 해서 동그라미라고 부르지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매일이 완벽할 순 없다. 오늘 하루도 찌그러지고 모난 내 동그라미를 움직여, 인생이란 길을 굴러가 보자.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오늘의 장소

삶의 여유가 필요할 때, 문화 경험의 확장을 - 복합문화 공간 에무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범람하는 OTT 영상에 지쳤을 때, 색다른 장소에서 율림을 느끼고 싶을 때, 이런 순간이 온다면 '복합문화공간 에무(emu)'에서 독립 영화 관람은 어떨까? 종로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에무의 지하에는 공연장과 미술관이, 지상에는 북카

페와 영화관, 옥상 정원이 존재한다. 특히 2, 3층에는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하는 주된 이유인 독립·예술 영화 전용 상영관 에무시네마(Emu Cinema)가 있다. 에무라는 이름은 르네상스 시대 사상이 에라스무스의 약칭에서 온 것으로, '상처 속에 우주가 있다'라는 사상을 구현하고자 고안했다. 많은 자본과 투자자의 지원으로 제작되는 기존 상업영화와 달리, 작품에만 집중해 제작되는 독립 영화는 영화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에무시네마는 빈백석을 포함해 2층 51석, 3층 52석으로 비교적 작은 상영관 규모를 갖고 있지만, 이는 작품성에 집중하며 영화를 음미할 수 있는 장점으로 다가온다. 상영 일정은 매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주단위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혹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시간표를 확인한 뒤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또 주목할 점은 개봉하는 독립 영화와 더불어 흥행했던 작품이 시간표에 올라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기준 '여름이야기', '중경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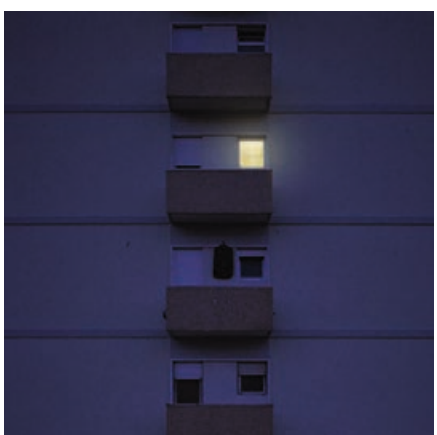
람' 등 유명한 작품이 시간표에 올랐다. 더불어 에무시네마는 5월~10월 사이 '별빛영화제'라는 야외 상영을 개최한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옥상 정원에서 밤공기와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으니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혹은 혼자서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상영 예정 작품으로는 '노트북', '비포 선라이즈', '한여름 밤의 제즈' 등이 있다. 복합문화공간 에무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에서 도보 약 1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서경대학교 기숙사로는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승덕초교 혹은 길음뉴타운 정류장에서 171번, 150번, 160번 버스로 이동할 수 있다. 색다른 장소에서 시각과 경험의 폭을 넓혀보자.

강예진 수습기자 (jinvd@skuniv.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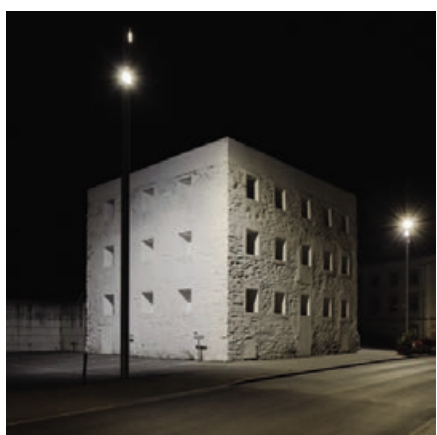
오늘의 음악

밤을 헤아리는 카더가든의 음악

감미로운 카더가든의 목소리는 우리의 밤을 감성으로 몽곤하게 적시기 충분하다. 그의 노래에서 '밤'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키워이기도 하다. 그도 그의 목소리가 밤과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아는 것일까? 카더가든의 노래와 함께하는 밤은 행복으로 물들기도 하고 고되었던 하루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이 따뜻해지기도 한다. 차갑고 외로운 밤에 외로이 놓인 당신에게 그가 노래하는 밤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 출처: 벅스



▲ 출처: 벅스



▲ 출처: 지니어스

♪ 〈가까운 듯 먼 그대여〉 - 카더가든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디지털 싱글 '가까운 듯 먼 그대여'는 명실상부 카더가든의 대표곡이다. 잠을 이루지 못했던 어느 밤, 창틀 사이로 비취오는 한 줄기의 빛을 보며 이 노래의 가사를 곱씹곤 했다. 누군가 때문에 뒤척이며 밤을 지새운 기억은 우리 모두의 기억일 것이다. 앞으로도 찾아올 그 밤을 이 노래와 함께 보내 보자.

♪ 〈Blue Blue〉 - 카더가든

"We're running in the summer Hello, hello, hello 이 밤 변치 않길"

여름날의 밤은 특별하다. 꿀을 듯 타오르던 정열의 태양이 지고 마주한 밤은 선선한 공기가 감돈다. 그 공기를 맡으며 이 노래를 듣는다. 어떨 때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밤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날도 있다. 속절없이 가버리는 시간에 아쉬워하는 것도 잠시, 충만한 행복에 노래의 즐거운 멜로디를 잃어 행복함 감정을 하나하나 만끽해 본다.

♪ 〈Memorize Our Night〉 - 카더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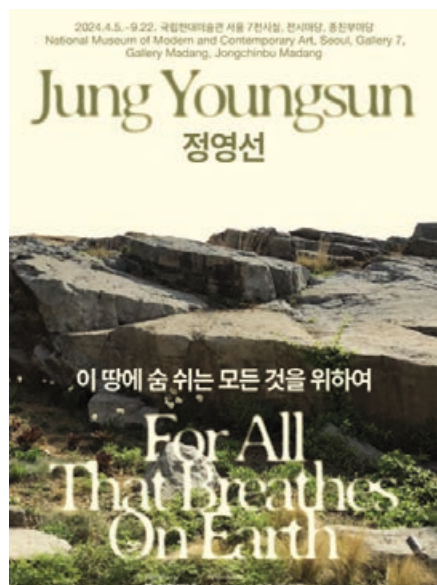
"밤 비 조금 맞을 때면 나는 언젠가 돌아보게 될 우리의 밤을 외워요"

비로 적셔진 밤도 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밤빛소리와 이 노래를 함께 섞어 나만의 교향곡을 작곡한다. 물웅덩이에 비친 가로등의 불빛이 아른거리는 것처럼 카더가든의 노래와 함께하는 비 오는 밤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노래의 제목을 소리내어 읽어보며 이 밤을 기억하겠노라 다짐한다.

전준혁 수습기자 (nicejackyhyu@naver.com)

오늘의 전시회

땅으로부터 온 모든 것에 보내는 찬사 - 정영선: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 최초 여성 조경가이자 여성 1호 국토개발기술사인 정영선의 반세기 여정에 걸친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개인전이 열렸다. 전시는 1980년대부터 〈서울올림픽미술관, 조각공원〉(1988), 〈대전 엑스포 93〉(1993, 1999), 〈여의도생강생태공원〉(1997, 2008), 〈선유도공원〉(2002) 등 국가·지역·민간 주요 프로젝트를 구축해 온 그의 대표작들을 소개한다. 이와 동시에 서울관 특색에 맞게 정영선의 조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원을 전시마당과 종진부 마당에 조성했다. "우리가 다루는 대지는 공간적으로나 시

간적으로 절대 독립되지 않고 시·공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조경이라는 작업은 무엇을 만들고 생성하는 창작 이전에 '관계를 다듬고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영선은 평생에 걸친 작품활동을 통해 식물을 가까이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을 강조해 왔다고 한다. 도시 경관을 위해 자연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시는 1970년대 작업부터 현재 진행형인 프로젝트까지 조경 활동을 총망라해 다양한 기록 자료를 한자리에 소개한다. 전시실에 들어가자 그가 진행한 프로젝트 중 60여개를 선정해 500여점의 자료로 가득한 공간이 펼쳐졌다. 작품을 주제와 성격에 따라 '패러다임의 전환, 지속가능한 역사 쓰기' '세계화 시대, 한국의 도시 경관' '자연과 예술, 그리고 여가 생활' '정원의 재발견' '조경과 건축의 대화' '하천 풍경과 생태의 회복' '식물, 삶의 토양' 등 일곱 묶음으로 묶었다. 빼곡하게 들어선 수채화, 연필, 파스텔 등을 비롯해 모형, 설계도면, 조각도, 청사진과 실제 작업물의 사진, 영상에 관람객들의 탄성이 자자했다.

전장과 바닥을 심분 활용한 전시 형식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전시를 더욱 외왕하게 했다. 투명한 유리 아래 바닥에 놓인 작품과 더불어 어떤 관람 순서도 제시되지 않아 관람객들이 직접 전시실을 거닐며 맥락을 찾아야 했기에 입체적인 감상이 가능했다. 50년의 역사가 단 한 순간도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공간 기획에 "조경가는 연결사"라는 그의 말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전시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디자인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오롯이 전해져 왔다. 전시실을 나서고 보니 조경을 통해 딱딱한 건축물에 초목의 생기를 불어넣은 조경가 정영선, 땅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것에게 마치 찬사를 보내는 것만 같았다.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조경은 땅에 쓰는 한 편의 시가 될 수 있고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듯, 우리가 섬세히 손질하고 쓰다듬고 가꾸는 정원이 모든 이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치유와 회복의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송민경 기자 (hilldawn012@skuniv.ac.kr)

· 전시일정: 2024. 04. 05 ~ 2024. 09. 22 · 관람비용: 2,000원 · 관람시간: 월, 화, 목, 금, 일 10:00 ~ 18:00 / 수, 토 10:00 ~ 21:00 · 전시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지하 1층, 전시실, 전시마당, 종진부마당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오늘의 드라마

평생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사랑은 있다 - 선재 업고 튀어 (2024)



▲ 출처: tvN 홈페이지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혼에 스미는 거야." 극 중 여주인공의 외할머니가 한 대사다. 이 드라마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이것이 아닐까. 우리는 살아야 하며 무수히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그리고 나중에 그때를 돌이켜보며 생각하곤 한다. "그때 이 방법이 최선이였을까?", "너 나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너무 과거의 기억에만 매몰되면 정작 과거의 기억을 되짚고 있는 그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게 된다.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는 여주인공 '임솔'이 사고로 인해 삶의 의지를 놓은 순간, 본인에게 다시 살아갈 의지를 심어준 아티스트 '류선재'의 죽음을 막기 위해 과거로 되돌아가며 벌어지는 일을 다뤘다. 누가 알았겠는가? 가장 좋아하는 연인이 자신의 옆집에 살았다고 학창 시절에 그도 자신을 좋아했을 거란 걸. 솔은 선재의 죽음과 자신의 사고를 막기 위해 수많은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과거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선재는 계속해서 죽음에 처하고, 결국 솔은 선재와 자신의 접점을 아예 없애버린다.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의 기억에서 자신을 영영 지워버린 솔은 행복해질 수 있

을까? 선재는 사랑했던 솔을 다시 기억해 낼 수 있을까? 드라마 제작진은 '선재 업고 튀어'를 통해 한 가지 물음표를 던져보고 싶었다. '과연 특별한 기억이 일어나는 순간만이 '운명의 시간'일까?' 라고 말이다. 그들은 '어쩌면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오늘이, 사랑하는 사람과 눈 마주치고 웃을 수 있는 이 순간이 본인의 운명의 시간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한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사랑을 표현하길 바라는 제작진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그들의 문장을 빌려 이만 말을 끝맺는다. '그렇기에 1초만 흘러도 과거가 될 지금, 이 순간을 아름답게 봐주기를, 흘러보낸 시간 속에서 놓치고 지나쳐버린 특별한 순간들을 되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오늘의 여행

모두를 잇는 '둘레길'로, 모든 걸 잊고 떠나보자



▲ 출처: 두루누리홈페이지

일상의 피로가 극에 달하면 우리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진다. 걸을수록 피로가 풀리는 길로 여행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 이번 호 '오늘의 여행'에서는 당신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게 해 줄 '국내 둘레길 여행'을 소개한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코리아 둘레길'을 운영하고 있다. 코리아 둘레길은 동해의 해파랑길, 남해의 남파랑길, 그리고 서해의 서해랑길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둘레길과

한반도 한 귀퉁이를 바느질하듯, 미약한 발걸음을 하나씩 수놓아 촘촘히 완성되는 완주길은 우리에게 커다란 성취감을 선사한다.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게 지루하게 느껴질 땐 잠시 걷던 길에서 벗어나 주변을 만끽해 보는 것도 좋다. 신발을 벗고 모래를 가로질러 파도에 맨발을 적셔보자. 차갑게 와 닿는 바닷물 때문인지, 소소한 일탈을 저질렀다는 쾌감 때문인지, 마음이 팬스레 찌릿하고 더없이 자유로울 것이다. 하늘은 해안가를 걷다 햇볕에 지칠 때쯤이면 어김없이 우리 앞엔 울창한 숲이 기다리고 있다. 시원한 나무 아래에서 크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걸어나가보자. 가끔은 고백들 사이 구부렁하게 난 길을 지나다 담장 너머 어르신들과 눈이 마주친다. 여색하더라도 짧은 인사를 주고받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처럼 둘레길은 산과 바다, 자연과 마을, 그리고 사람을 하나로 연결한다. 긴 여정이 주는 고단함도 잠시뿐이다. 나를 둘러싼 푸른 바다와 산이, 길 가다 만나는 정다운 사람과 마을이 자꾸만 나를 위로한다. '길이 피로를 풀어주는' 여행이다. 앱 '두루누리' 혹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둘레길 여행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이나 프로그램, 코스별 난이도와 소요 시간 등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김경민 수습기자 (anna2467@skuniv.ac.kr)